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117-173
<https://doi.org/10.29212/mh.2023.126.1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적극방어 교리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 미육군 FM 100-5 작전 교범 1976년판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박솔규 | (주)한화방산 보은사업장

- 목 차
1. 서론
 2. 교범작성의 배경
 3. 교범작성 초기과정
 4. 교범작성과정 중 반발
 5. 교범의 완성과 논란
 6. 결 론

초 록 이 논문은 베트남전을 종식하고 대분란전에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관심과 교리가 변화하던 1970년대의 격렬한 교리변화의 중심점인 ‘적극방어’교리의 작성과정을 통해 적극방어 교리의 본질을 연구한다.

1970년대 미육군은 베트남전 후 10여년 간 정체상태였으나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은 현대화로 양과 질 모두 주유럽미군과 NATO

동맹국을 압도한다. 하지만 베트남전 이후 미육군은 반군감정, 예산의 감축,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등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73년 발발한 4차 중동전으로 현대전의 치명성이 미육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해 창설된 미육군 훈련·교리사령부의 초대사령관인 윌리엄 E. 드퓨이 장군은 그의 전술관을 강하게 반영한 유럽중심의 대규모 전면전 교리의 개발을 시작했다.

육군참모총장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드퓨이는 그의 지지자인 폴 F. 고먼 장군과 돈 A. 스테리 장군의 협업으로 적극방어 교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존 보병병과와 야전부대 등에서 많은 반발을 보였다. 드퓨이는 교리작성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미육군 전력사령부(FORSCOM)와 공동으로 옥토펬스트 컨퍼런스를 주최하였고, 독일 육군 및 미공군 전술항공사령부(TAC)와 교리작성 협업을 하여 교리적 합의라는 정치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리개발을 통해 최종적으로 FM 100-5 작전 1976년판의 작성을 진행하자 드퓨이는 예하 병과학교, 교리센터들과 작성과 전술관에 차이로 진통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드퓨이의 강한 추진력으로 교범은 결국 작성되었고, 재차 전력사령부(FORSCOM)와 공동으로 오프트론 컨퍼런스를 주최하여 적극방어 교리를 승인받는다.

교범이 출판되고 배부된 후 육군 내외적으로 전통적인 공세주도, 주도성(initiative)을 중시하는 미육군의 군사사상, 전통보병교리와 충돌하고 많은 반발에 직면한다. 논란의 중심점인 적극방어 교리는 결국 5년뒤 ‘공지전투’교리로 대체되게 된다.

주제어 : 적극방어, 미육군, 교리, 작전, 공지전투, 전면전, 제병협동, 드퓨이, 스테리, 전술

(원고투고일 : 2022. 10. 4, 심사수정일 : 2023. 1. 7, 게재확정일 : 2023. 2. 16.)

1. 서 론

미육군은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경된 교리를 사용해왔으며, 조직구조와 실천 측면에서 미육군에 영향을 미쳐왔다.¹⁾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육군의 교리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0년대부터 공지전투가 제시된 1980년대까지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전술 교리의 급격한 변화는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1970년대 초에 일어났다. 이는 육군이 교리의 초점을 재래식, 핵, 대분란전, 재래식 작전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또한 교리의 변화는 안보환경 변화 외에도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였다.²⁾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한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대전말기 발전한 폭격기 및 핵무기 등에 의존하여 대규모 전략폭격, 장거리미사일, 핵 및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 전략무기 중심으로 교리를 전환하였고, 본격적으로 1950년대부터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여 핵무기 공격과 방어에 맞게 부대구성을 5각편제(Pentomic Organization)로 변경한 펜토믹 시대(Pentomic Era)를 열었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케네디 행정부는 전략적 핵전쟁의 문제를 다른 모든 종류의 전쟁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했고, 육군은 5각편제의 단점³⁾을 인식하고 재편제목표육군사단(Reorganization Objectives

1) Erick M. Nyingi, *Complexity and Design Leadership: The Design of Active Defense and AirLand Battle Doctrines*,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19), p. 5.

2) Robert A. Doughty,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79), pp.1~2.

Army Division, ROAD)연구를 거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기갑 사단과 전투 사령부의 논리적 기반을 배경으로 재래전으로 전환하였다. 미군은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공산주의 반군과의 전투에 관련한 대비로 대분란전(counter-insurgency) 교리를 발전시켰고, 베트남전의 확전으로 인해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⁴⁾ 국방장관 주도로 경보병과 항공수송(air-mobile)이 주도하는 교리가 중심이 되었다. 1970년대 초 베트남에서 철수 후 미군은 다시 유럽에서의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재래전 중심으로 교리를 전환하게 되었다.⁵⁾

미육군은 미국 대중의 극렬한 반군감정과 함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수십만의 감군,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양적·질적 상승 등으로 인한 미국 내·외부에서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73년에 창설된 미육군 훈련·교리사령부(TRADO C)⁶⁾의 초대사령관인 윌리엄 드퓨이(William E. DePuy) 장군⁷⁾은

-
- 3) 당시 육군참모총장 조지 데커(George H. Decker)에게 “전투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술핵무기가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케네디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공식 폐기된 후 이전의 전통적인 사단개념과 유사한 ROAD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병구, 『미국의 제1차 상쇄전략과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펜토믹 사단 개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권2호(2021), p. 213.
- 4) 존 F. 케네디에게 국방장관으로 지명되어 1961년부터 1968년까지 7년간 장관을 역임하며, 국방부의 유연반응전략과 비용효율화를 중점으로 개혁적인 성과를 내었다.
- 5) Doughty, *Ibid*, pp. 2~41.
- 6) 북미대륙에 주둔한 모든 미육군부대의 사령부인 대륙군 사령부(U.S. Continental Army Command, CONARC)를 전력사령부(U.S. Army Forces Command, FORSCOM)와 훈련·교리사령부(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두 개의 사령부로 분리하여 1973년 7월 1일에 창설되었다.
- 7) 1919년에 출생하여 1941년 사우스다코다 주립대 학군단(ROTC)에서 보병장교로 임관한 드퓨이는 당시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많은 장교들과 유사하게 임관전 학군단과 주방위군 병사 근무를 병행하였으며, 소위로 임관시에는 제20보병연대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2세에 중위로 진급, 새로 창설된 제90보병사단으로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1944년 6월, 노르망디에 상륙하였고, 소령으로 진급한 후 유태해변전투와 발지전투에 참전하였으며, 3개의 은성무공훈장(Silver Stars)과 수훈십자장

미육군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교리개발에 착수하였고, 1976년 미육군 교리사에 가장 혁신적이라 평가받는 1976년판 야전교범(FM) 100-5 작전(Operations)⁸⁾을 발간하였으며 그 교리는 별칭 ‘적극방어(Active Defense)’로 알려졌다.⁹⁾

미군 교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군내 교리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민간학계에서도 적잖은 수가 진행되었지만 ‘적극방어’교리에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공지전투¹⁰⁾ 교리와 최근의 다영역작전¹¹⁾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인데 반

(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수여받았다. 1945년 대대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맞은 25세의 드퓨이는 다리부상으로 한국전쟁은 참전하지 못했지만 CIA에서 대중국 공작작전에 근무하였고, 1950년대에는 제4보병사단 8보병연대 2대대장으로 1960년대 초에는 제3보병사단 30보병연대 연대장으로 유럽에서 3차례 근무했고, 베트남에서 군사지원사령부(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MACV)의 작전참모(J3)와 제1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베트남전을 경험했다. 이후 대분란전 및 특수전담당 특별보좌관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는 참모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대장으로 진급하여, 새로 창설된 TRADOC의 신입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 8) *FM 100-5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1976). 미 FM 100-5 Operations은 한국에서 ‘작전요무령’으로 번역되어 운용이 되었다. 당시 한국군은 해당 교범과 동격의 야전교범 100-5를 ‘작전요무령’으로, 1999년도에 ‘지상작전’으로, 2005년도부터는 ‘지상군기본교리’로 변경하였으며, 현재에는 ‘지상군기본교리’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당시 번역과는 별도로 원작의 문구를 직역하여 ‘작전’으로 표기한다.
- 9) 미육군 교범의 기원은 거의 20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폰 슈토이벤(General Friedrich Wilhelm von Steuben) 소장의 1779 Regulations for the Order and Discipline of the Troops of the United States 또는 Blue Book을 교범의 기원으로 본다. 근대에서 미군의 기준교범(Capstones Manual)인 FM 100-5 교범의 기원을 찾는다면 1905년에 발간된 FSR 1905(야전근무규정, Field Service Regulations)으로 출발하여, 1939년 FM 100-5 체계를 거쳐 현재의 ADP 3-0(통합 지상작전, Unified Land Operations, 2019년판)으로 부분 개정판을 제외하고 23회 출판되었다. *List of United States Army Field Manual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States_Army_Field_Manuals
- 10) 김영환, 「미국 기동전 사상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軍史』, 第123號(2022); 장재규,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방안 연구: 공지전투와 비교」, 『韓國軍事學論集』, 第77輯 第3卷(2021); 조상태, 「미 육군의 FM 100-5에 있어서의 공지전」, 『國防과 技術

하여, 적극방어 교리에 관련한 연구는 공지전투의 전반 배경¹²⁾이나 미군 전략 및 교리사 전반의 일환¹³⁾으로 설명되거나 또는 신문기사¹⁴⁾, 장군열전¹⁵⁾ 등으로 저자인 드푸이 장군이나 FM 100-5 작전

(Defense and Technology)』(1985) ;

- 11) 김재엽,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 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韓國軍事學論集』, 第75輯 第1卷(2019) ; 장재규, 상계서 ; 허광환, 「미국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군사연구』, 제147집(2019). ; 주장율,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구: 작전수행과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통권 127호(2020). ; 지효근,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통권76호(2019).
- 12) 김영환, 상계서 ; 조상태, 상계서 ;
- 13) 김만진, 「한반도에서의 공세적 방어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기동전 이론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 노양규, 「미군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 박기린, 「美國 安保政策과 軍事戰略의 變化: 그 特徵과 決定要因」,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 석영준, 「군사혁신으로 본 전쟁사」, 『군사연구』, 제127집(2009). ; 양욱, 「미국 군사혁신의 변천사: 군사변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혁신 과정」,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 58 (2021) ;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Vol 18-1 (2010) ; Summers, Harry G., 권재상·김종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 서울: 자작아카데미(1995)
- 14) 김한수, 「국군 개혁, 어떻게? 1970년대 美 육군 사례를 보자」, 『통일한국』(2018년 11월호), <https://unikorea21.com/?p=19627> (검색일: 2022년 08월 24일) ; 양욱, 「적극방어전략」, 『무기백과』, (2021년 01월 20일),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02163.html (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 15) 남보람,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상)-1976년판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5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06/1/BBSMSTR_000000010603/view.do (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남보람,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중)-1976년판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19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20/1/BBSMSTR_000000010603/view.do (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남보람,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하)-1976년판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26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27/1/BBSMSTR_000000010603/view.do (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토머스 릭스, 김영식·최재호 역, 『제네럴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2.

1976년판 작성의 혁신적 중요성만 소개되는 수준으로 교범의 자세한 작성과정과 적극방어 교리만의 직접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군내 교리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1976년 교범이 발간되고 겨우 수년이 지난 1980년대부터 활발한 연구¹⁶⁾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교리변화인 다영역작전과 관련하여 미군 교리혁신의 원천으로 최근 2019년까지 연구¹⁷⁾가 있다. 폴 허버트의 “Deciding What Has to Be Done”은 아마도 드퓨이 장군과 ‘적극방어’교리의 배경 및 작성과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일 것이며, 존 롬주의 “Active Defense to Air Land Battle”은 돈 스태

16) Romie L. Brownlee, Mullen III William J., *Changing An, Army An Oral History of General William E. DePuy*, Retired, U.S. Military History Institute, Washington, D.C. :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1988) ; Michael W. Cannon, *The Development of FM100-5 from 1945 Until 1976*, University of Iowa, Master of Arts(1984) ; William E. DePuy, *FM 100-5 Revisited*, Army 30, no.11(1980) ; Doughty, *Ibid.* ; Paul H. Herbert, *Deciding What Has to Be Done: General William E. DePuy and the 1976 Edition of FM 100-5, Operations*,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88) ; John L. Romjue,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 Fort Monroe,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1984) ; Jeffrey W. Long, *The Evolution of U.S. Army Doctrin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 Battle and Beyond*,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91) ; Richard M. Swain,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95) ;

17) Clinton J. Ancker, *The Evolution of Mission Command in U.S. Army Doctrine, 1905 to the Present*, Military Review March-April(2013) ; Paul F. Gorman, *Cardinal Point: An Oral History — Training Soldiers and Becoming a Strategist in Peace and War*,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1.; Aaron J. Kaufman, *Continuity and Evolution: General Donn A. Starry and Doctrinal Change in the U.S. Army, 1974-1982*,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12) ; Nyngi, *Ibid.*

리(Donn A. Starry) 장군의 ‘공지전투’교리의 작성 과정을 기록하면서 ‘적극방어’에서 ‘공지전투’로 교리가 바뀌게 된 쟁점에 대한 전 반을 연구한 자료이다. 로버트 도우티의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6년부터 FM 100-5 작전 1976년판이 출판된 해까지 미육군이 겪은 전략적 및 작전상의 도전에 대한 개요를 연구한 자료이다. 또한 스웨인의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브라운리의 “Changing An Army An Oral History of General William E. DePuy, Retired”, 고먼의 “Cardinal Point: An Oral History — Training Soldiers and Becoming a Strategist in Peace and War” 같이 미육군 군사역사 연구부서를 중심으로 드퓨이 장군의 문서, 편지, 보고서, 인터뷰 등 원천자료 연구도 있다. 최근에는 ‘적극방어’교리 자체보다는 드퓨이 장군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중점으론 닝기의 “Complexity and Design Leadership: The Design of Active Defense and AirLand Battle Doctrines”와 교리변화 과정을 스테리 장군 중심으로 본 카우프만의 “Continuity and Evolution: General Donn A. Starry and Doctrinal Change in the U.S. Army, 1974-1982” 등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전이 종식되고 대분란전에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관심과 교리가 변화하던 1970년대의 격렬한 교리변화의 중심점인 ‘적극방어’교리의 작성과정을 통해 ‘적극방어’교리의 본질을 연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분란전에서 전면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연구와 우리군 교리 및 육군 기준교범인 지상작전 교범 연구에 기반을 제시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¹⁸⁾

18) 폴 허버트의 교리작성과정 연구를 주로 참고하고, 이후 발간된 드퓨이장군과 고먼 장군의 인터뷰 자료, 스웨인의 공식문서모음집 등의 원천자료로 교차검증하여 연구하였다.

2. 교범작성의 배경

가. 시대적 배경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에서 철군을 가속화하고 소련을 미국의 안보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는 1965년경 소련이 미국과 핵전력을 거의 동등하게 달성했다고 보았고, 미국이 전력증강과 무관하게 베트남전에서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고 있을 시기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은 재래식 전력의 무장을 한세대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켜 현대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1969년 닉슨의 괄 독트린(Guam Doctrine)으로 처음 선언되고, 나중에는 현실적 억제적 전략(strategy of realistic deterrence)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전략입안자들이 중동, 특히 이스라엘의 안보와 페르시아만 석유의 접근 경로를 ‘작은전쟁’으로 보는 등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¹⁹⁾

이런 위협과 동시에 이시기 미육군의 내부적 문제도 심각했다. 질적인 면에서도 주유럽미군인 미육군 제7야전군은 역사상 가장 낮은 준비 상태로 부대 대부분의 인력이 베트남전의 인력풀로 사용되었고, 장교와 부사관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했다. 또한 베트남 전쟁 기간 내내 미육군의 훈련과 전쟁에서의 경험은 전적으로 보병 중심적인 전투에 대한 노력에 집중했으며, 미 육군을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군대로 만들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중의 환멸은 사기적 측면에서 모든 군사 조직, 특히 육군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이 되어 있었고, 1973년 미 육군은 전체적으로 조직

19) Herbert, *Ibid*, p. 4.

의 정체성과 사기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²⁰⁾

이런 미육군의 위기 상황에서 1973년 흔히 욘 키푸르 전쟁으로 불리는 4차 중동전이 발발하였다. 참전국인 이스라엘과 아랍 군대²¹⁾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기갑전력의 충돌로, 3주간의 전투가 끝났을 때, 양측의 기갑과 포병의 총 손실은 유럽 미 육군의 전차와 곡사포 재고 전체를 초과하였다.²²⁾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가장 치열한 전투와 비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히 대전차미사일(ATGM)²³⁾과 통합 방공 체계와 같은 최신식 무기로 얻어진 치명적인 결과였다. 베트남에서의 철군, 바르샤바조약군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4차 중동전의 교훈 등 여러 내외적 영향으로 인해, 1970대초 시작된 미육군의 교리 재검토는 베트남에서의 보병을 헬기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공중기동전(infantry-airmobile warfare)에서 서유럽의 주요 전략적 관심이 되는 유럽 전구에서 재래식 제병협동전(conventional combined arms warfare)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이러한 교리재검토는 1973년 창설된 TRADOC에 부여된 임무였으며, 초대사령관인 윌리엄 드퓌이 장군에게는 사명같은 임무가 되었다.²⁴⁾

20) Herbert, *Ibid*, p. 6. ; Nyingi, *Ibid*, p. 16.

21)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등이 다수의 국가가 참전하였다.

22)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병력 약 1만2천명의 전사상자, 전차 1,063대, 장갑차 407대, 전투기 387대의 손실을 입었고, 아랍군은 병력 약 5만명의 전사상자 및 포로, 전차 2,000대 이상, 장갑차 3,000대 이상, 전투기 약 500대 등의 손실을 입었다. 수치상으로 이스라엘 군의 대승이었으나, 이스라엘군은 개전 2일간만 전차 300대 이상을 손실하였고, 이후 골란고원까지 추산하면 800대의 전차를 단일전투에서 손실하였다. 또한 전사자 2800명중 1500명이 전차 승무원이었고, 이후 기갑병과와 전차승무원에 대한 지원이 기피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Yom_Kippur_War (검색일 : 2022년 8월 28일)

23) 이집트군은 AT-3(9M14 말룻카) 대전차 미사일로만 이스라엘군의 전차 150대 이상을 파괴하였다.

24) 미육군 교리의 잃어버린 베트남전 10년 이후의 교리 개혁은 여러 내외적 영향으로 인하여 미육군 내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었다 하더라도, 드퓌이 장군이

나. 훈련·교리사령부 창설

미육군은 1971~1972년 ‘Steadfast(변함없음)’이라는 계획명으로 육군재편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행하였다. Steadfast이전에는 전투 개발사령부(Combat Development Command, CDC)가 특정 장비에 대한 육군 교리, 조직 및 요구 사항을 개발하였고, 이 요구사항을 당시 조달기관이었던 육군물자사령부(Army Materiel Command, AMC)에 전달하였다. AMC는 이 요구사항에 맞춰 물품을 설계, 개발, 조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절차에서 드퓨이는 당시 육군이 가장 원하던 AH-56 샤이엔(Cheyenne) 공격헬리콥터와 MBT70 주력전차(Main Battle Tank) 획득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두 무기체계는 이후 현재까지도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한 무기체계인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M1에이브럼스 전차의 기원이 될 정도로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강력한 무기체계였지만, AMC는 고가의 무기체계에 상응하는 필요성을 국방부와 의회에 납득시킬 수 없었다. 애초에 CDC가 전문기술을 지원받는 각 군교육기관들과 다른 지휘체계에 있었고, 지리적 거리를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리와 무기체계 획득이 서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⁵⁾ 이는

1973년 초대 TRADOC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수행한 강한 추진에 의한 교리적 변혁은 속도, 형태, 그리고 그것이 전달하는 사상에서 드퓨이 장군의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Romjue, *Ibid*, p. 3. ; 제2차 세계대전에 제90보병사단의 일원으로 참전한 드퓨이는 노르망디에 상륙하였다. 90사단은 상륙 후 악명높은 빌레보카주 전투, 몽카스트레 인근 고지대 전투, 메즈 요새 전투 등에 참가하였고, 90사단은 참전 2개월여 간 엄청난 손실로 인해 소총병력의 100%를 대체할 정도로 맹렬한 독일군과의 격전에 참여하였다. Herbert, *Ibid*, pp. 14~15. ; 이런 11개월간의 격렬한 전투는 드퓨이에게 강렬한 영향을 끼쳤으며, 평생 동안의 교훈이 되었다. 이 교훈으로 형성된 드퓨이의 전술관을 미육군의 교리로 정립하려는 강한 의도가 있었다.

25) Herbert, *Ibid*, pp. 27~28.

드퓨이에게 교리 및 훈련—소요—개발—획득으로 이어지는 개념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강조되는 철학적 개념이 되었다. 결국 이 재편안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1973년 드퓨이는 해체 예정인 CONARC의 부사령관을 거쳐 새로 창설되는 TRADOC의 초대 사령관이 되었고, 이로써 수십 년간 쌓아온 전술적 사고로 교육훈련 및 조직 관리, 교리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이 합쳐졌다.²⁶⁾

1973년 베트남에서의 완전 철군과 맞물려 미육군은 엄청난 조직 전환을 시행하였고, 신임 육군참모총장 크레이튼 에이브럼스(Creighton W. Abrams) 장군과 하워드 캘러웨이(Howard H. Callaway) 육군장관은 육군이 전투를 준비하는 것보다 징병제에서 전환된 새로운 모병군 조직으로서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캘러웨이 육군장관은 육군에게 모병, 현역 유지율, 인적수준, 훈련방법관리, 생활환경, 그리고 대중적 이미지 향상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에이브럼스 참모총장은 육군에게 할당된 785,000명의 병력상한선 내에서 13개의 사단 수를 16개로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주요 지휘관들에게 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TRADOC 역시 구성원 감축, 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등에 주력하였고, 장교 교육과정의 단축, 신병의 재배치 비용의 절감을 위한 공통훈련, 전문 훈련을 위한 교육교보재의 배치 등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망스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퓨이는 교리 및

26) 초기 계획안에 FORSCOM의 사령관이 대장 직위, TRADOC의 사령관은 중장 직위로 결정되어 있었다. 드퓨이는 대장으로의 진급이 제한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TRADOC의 사령관을 선택하였고, 이는 교리 및 훈련에 드퓨이가 얼마나 열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후 TRADOC의 사령관 직위가 대장으로 승격되었고, 드퓨이는 대장 진급과 동시에 TRADOC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CONARC의 사령관은 월터 커윈(Walter Thomas Kerwin Jr.) 대장으로 CONARC 해체 후 커윈은 FORSCOM의 사령관이, 드퓨이는 TRADOC의 사령관이 되었는데 이는 개개인의 선호도에 맞춘 것으로 큰 이견 없이 진행되었다. Brownlee, *Ibid.* p. 180.

훈련 개혁에 있어서 의지를 잃지 않고 있었다.²⁷⁾

1973년부터 추진된 육군의 주요 획득사업인 ‘Big Five’ 항목은 주력전차(MBT), 기계화보병전투차(MICV), 공격헬기, 수송헬기, 단거리방공미사일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획득사업이 육군의 전반적인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우선 드퓨이가 시작한 일은 자신이 재편한 제병협동전투개발국(Combined Arms Combat Development Agency, CACDA)을 통해 전투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제병협동작전(combined arms operations) 교리에 관련한 교범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드퓨이가 추구하였던 것은 모든 전투 개발과 물자 획득을 육군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형, 날씨 및 적 활동의 특정 조건을 설명하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현용 조직과 장비의 제약에 따라 개념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육군이 개발하는 장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육군 시스템과 호환되고 배치 및 운용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27) 드퓨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훈련체계의 시급한 재건이었다. 각 병과학교의 교육실태를 점검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초군장교 교육에서 공병학교는 불도저, 로터, 그레이더 등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 보병학교는 대부분의 교육이 야외가 아닌 교실에서 이론교육으로, 기갑학교는 전차장·전차소대장이 아닌 중대장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등 현실책보다 1~2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바로 수행하는 직책의 현실과 상이했다. 드퓨이는 이를 미군이 과거의 동원군(Mobilization Army)의 개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이스라엘식 교육을 참고하여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또한 과거 CONARC에서 하달하던 획일된 징집병(conscripts)식 교육인 소떼몰기(on the trail)식 지침을 폐기하고, 새로운 성과지향형 훈련방법인 기술자격 시험(Skill Qualification Tests, SOT)과 육군훈련평가프로그램(Army Training and Evaluation Program, ARTEP)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드퓨이의 강한 개혁은 기존의 육군의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Herbert, *Ibid.*, p. 25.

드퓨이는 이와 같은 증명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은 육군 전체의 공감대와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상에서 실제 존재하는 육군 임무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제작을 CACDA의 주요 과제로 보았기 때문에 CACDA의 지휘관인 존 쿠쉬먼(John H. Cushman) 소장에게 총괄 임무를 부여하였다. 각 병과학교장들에게는 해당 병과의 전투개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시나리오에 새로운 교리와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을 하게 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적의 무기를 분석하고 새로운 교리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개발된 아이디어는 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이라는 공식문서로 표현해야 했다. ROC는 시나리오에서 육군이 이 능력을 왜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였다. 이후 승인된 ROC는 비용 및 작전 효과분석(Cost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Analysis, COEA)을 거쳐 최상의 해결책으로 군, 국방부, 의회에 설명이 되는 근거가 되었다.²⁸⁾

다. 4차 중동전 분석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전쟁 직후 에이브럼스 육군참모총장은 TRADOC에게 전쟁의 교훈을 도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곧 드퓨이의 지시에 따라 CAC, 각 학교기관들, 센터들 등에서 대표자로 구성된 특별그룹을 구성하였다. CACDA의 부사령관인 모리스 브래디(Morris J. Brady) 준장이 이끄는 이 그룹은 중동을 방문하여 1974년 7월에 육군에 중요한 162가지 특정 사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²⁹⁾ 브래디의 보고서는 미육군의 중강도전쟁능력(mid-intensity war-fighting

28) Herbert, *Ibid*, p. 77. 현재까지 무기체계 소요와 개발에 중요한 절차를 이 당시 드퓨이의 주도하에 정립하였다.

29) Herbert, *Ibid*, pp. 29~30.

capabilities)의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작전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등 전훈 내용이 미육군에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기에는 부족했고, 드퓨이는 이러한 미진적인 권고사항 수준의 결론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결국 드퓨이는 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분석하여 브래디 보고서의 모호한 세부사항보다 더 많은 결론으로 미육군에게 즉각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에이브럼스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였다. 드퓨이가 작성한 보고서는 이후 TRADOC의 공식적인 교훈 분석의 기초로 향후 2년간 교리작성의 방향을 주도하였다.³⁰⁾

드퓨이는 4차 중동전에서 제병협동(combined arms)을 주요 교훈으로 생각하였다. 아랍군은 대전차미사일(ATGM), 지뢰, 휴대용 로켓(RPG) 등으로 무장한 전차킬러팀을 구성하여 매복으로 역습하는 이스라엘 전차를 대량 격파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최대속도로 이동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이런 전차들은 보병식별이 제한되었고, 지형에 맞게 잘 매복한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로켓에 쉽게 격파당했다. 다급한 이스라엘군은 방어진지를 근접항공지원으로 돌파하려했으나, 아랍군의 방공전력에 차단되었다. 아랍군은 지상군을 엄호하는 방공우산이라는 개념으로 지상군을 근접지원하기 위해 레이더로 잘 통제된 단거리 방공포형태와 미사일형태를 혼합하여 방공망을 운용하였다. 이러한 지상군 지원 방공망은 케도화 되어 최전방부대까지 동행하여 이스라엘의 공중지원을 원천차단 하였고,³¹⁾ 결국 이스라엘은 보병, 포병, 기갑의 제병협동을 하고서야 이집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방공망을 파괴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지상군

30) Swain, *Ibid*, pp. 69~74.

31) 전쟁기간 이스라엘군은 109대가 손실되었는데, 그중 방공망으로 81대를 잃었다. 반면 이스라엘 군은 항공기 간의 공중전으로 334대를 격추하였고, 공습으로 22대를 지상파괴, 방공망으로는 101대를 격추하였다. Karl H. Eulenstein, *North Korea-South Korea Computer War Game*, 1975.

은 이 방공망을 파괴한 이후에나 적절한 공중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집트군의 중심을 파괴할 수 있었다. 드퓨이는 이러한 면에서 제병협동을 위해 적의 대전차 능력을 보유한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전차와 함께 이동하며 장갑방호력과 기관포를 구비한 기계화된 보병부대를 핵심사항으로 생각하였다. 현대에 보편화되어 있는 보병전투차(Infantry Fighting Vehicle, IFV)개념과 유사한 이 개념은 기존 미육군의 단순히 이동성과 장갑에 의한 과편보호만을 강조한 보병수송장갑차(Armored Personnel Carrier, APC)개념과는 다르며,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들이 전차전투와 기동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³²⁾

드퓨이는 4차 중동전에서 도출된 교훈이 그동안 미육군이 중강도 분쟁(mid-intensity conflict)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그에게 하나의 큰 목표를 주었다. 드퓨이는 폴 고먼(Paul F. Gorman) 장군³³⁾의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how we fight)’와 쿠쉬먼의 ‘시나리오’를 넘어 육군 전체를 바꾸려(changing the army) 하였고, 그의 확대된 지휘권은 교리를 바꾸는데 충분한 권한과 조직을 주었다. 일단 드퓨이는 현대전의 위협을

32) 미육군에게 4차 중동전은 준비되지 않은 현대식 재래전 유형을 제시하는 변화라면, 드퓨이에게는 그동안 착실하게 발전된 그의 전술관을 확인시켜주는 연속성이었다. 그에게 현대의 위협적인 적의 대전차 미사일은 과거의 대전차포였고, 이스라엘군이 보여줬던 제병협동은 그가 중요시하였던 엄호하 기동인 ‘엄호망(overwatch)’이었다. 전통적인 전투에서 드퓨이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기갑의 전차였는데, 전차의 특성인 기동성, 화력, 장갑보호로 적의 방어선을 뚫고 지휘통제, 통신, 군수지원 등의 후방의 주요요소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접접근식의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33) 드퓨이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폴 고먼(Paul F. Gorman)은 훈련·교리사령부(TRADOC)에서 훈련참모차장으로 근무하면서 SOT, ARTEP 등을 작성하면서 육군훈련체계를 크게 발전시켰고, FM 100-5 1976년판의 주작성자가 된다. 이후 8보병사단장, CIA과견관, 합참 등에서 근무하고, 남부사령부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한다. Gorman, *Ibid* ; 무기지수, 전투력 비율 측정 방법을 연구개발한 운영분석 전문가로 운영분석과 체계분석을 군에 도입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된다. 남보람, 전계서(중).

느꼈고, 교리적인 변혁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상정하고 18개월 내 모든 육군의 야전교범을 다시 작성하여 육군의 전제대에 일치된 전술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드퓨이는 우선 육군 전체를 바꾸려면 상급지휘관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합의하고,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증된 교범을 통해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육군의 기준교범(capstone manual)인 FM 100-5 작전(operations)을 바꾸는 것이 그 결정적인 목표가 되었다.³⁴⁾

3. 교범작성 초기과정

가. 병과 간 갈등

하지만 기준교범인 FM 100-5 작전 교범의 작성은 순조롭지 않은 않았다. 우선 드퓨이의 개념과 전훈에서 핵심적인 제병협동 교리 작성을 주도할 기관이 사실상 육군에 없었다. TRADOC 예하에는 제병협동센터(Combined Arms Center, CAC)가 있었으나 사단급 이상제대 만을 다루던 기관인 것을 고려하여 결국 드퓨이는 보병센터와 기갑센터를 통해 제병협동 교리작성을 낮은 제대의 수준부터 시작하였다. 이 결정으로 교리작성 초반부터 앞으로 주된 논란의 원인이 될 보병병과와 기갑병과 간 알력과 갈등이 크게 발생하였

34) Brownlee, *Ibid*, pp. 184~188. 4차 중동전 이후 TRADOC은 교리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TRADOC의 목표는 40개 이상의 ‘어떻게 싸우는가(how to fight)’ 교범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이 교범들은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의 교리를 현대전장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론적으로는 FM 100-5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FM 100-5의 새로운 작성은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다.³⁵⁾ 하지만 드퓨이는 기갑센터에게 교리작성을 주도하는 최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결국 기갑센터가 다른 TRADOC 기관들을 이끌고 육군의 교리의 본질을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이런 기갑센터를 중심으로 주도되는 교리작성이 추진된 드퓨이의 결정 이유는 기갑기계화전이 주축이된 4차 중동전의 교훈, 전차중심의 유럽방어계획, 전차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제병협동작전의 드퓨이의 개인 선호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기갑센터장인 돈 스타리 장군이다. 스타리 소장은 당시 참모총장이던 에이브럼스 장군과 기갑장교로 근무연이 있던 상당히 친밀한 관계³⁶⁾였으며, 드퓨이 장군이 “육군내 모든 계급의 다른 사람들 보다 전술 이해에 우월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인정하는 인재였고, 폴 고먼 준장과 더불어 드퓨이를 강하게 지지하는 친밀한 관계였다.³⁷⁾

그리고 보병병과에 대한 드퓨이의 기갑센터와는 상반된 비선호도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비록 보병센터의 타플리 소장은

35) 보병센터에서는 소대급 수준에서 전차와 보병을 조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여 기존대로 중대급 수준 이상의 전차운용 교리를 작성하는 기갑센터와 의견을 보였고, 기계화보병 교리작성 임무를 기갑센터에 부여함에 따라 기계화보병 교리의 우선권을 상실했다는 의미에 크게 반발하였다. 더구나 당시 중요하게 개발되고 있던 중동에서의 우발사태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또한 기갑센터로 임무가 부여되자 보병센터장인 토마스 타플리(Thomas M. Tarpley)소장은 교리작성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드퓨이 장군은 이런 작성권한의 논란을 조정하기 위해 기계화보병 교리작성권한을 여단제대 이상은 기갑센터에게, 대대이하의 제대는 보병센터에게 부여하였다. 보병센터에게는 이 밖에도 보병, 공수, 항공기동여단 등의 작성권한을 주었을 뿐 아니라 기갑과 기계화보병 여단에 대한 작성참여도 인정하였다.

36) 당시 미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간 근무연으로 후견인과 유사한 관계가 된 사례가 많았는데, 스타리는 독일근무간 전차소대장으로 대대장인 에이브럼스와 근무했고, 이후에는 베트남에서 연대장으로 다시 주월미군사령관인 에이브럼스와 근무하였다. Kaufman, *Ibid*, p. 6. ; 한우성, 아름다운 영웅 김용욱, 나무와 숲(2008). ; 폴린과월·요셉 E. 파시코, 『폴린과월 자서전』, 샘터(1997).

37) Herbert, *Ibid*, pp. 40~42.

유능한 인재였으나 보병병과의 기계화교리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드퓨이는 보고 있었고, 4차 중동전이 보여준 현대 기갑 전투에는 보병병과의 오랜 전통과 베트남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상이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병학교가 2.5마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길 원했다”라는 언급처럼 드퓨이는 보병병과에서 제병협동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빼는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³⁸⁾ 이러한 전통적인 보병병과 교리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당시에도 조율되지 않았고, 후일 최종적으로 교범작성이 완료되어 출판 및 배부가 되자 크게 반발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역시 기갑센티가 교리작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한 병과가 다른 병과의 교리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문제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³⁹⁾

나. 개념문서 초안 작성

드퓨이는 추진하는 새로운 교리개발 방향에 전체 육군의 합의와 이해를 위해 자신의 전술관에 대해 포괄적인 개념서를 작성하였다. 개념서의 초안들은 고먼의 사무실에서 소수로 선정된 작성실무자인 소령 및 중령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드퓨이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작성하였는데, 무기체계 분석, 작전 연구, 4차 중동전의 교훈 등으로 구성된 내용은 그의 전술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⁴⁰⁾ 이렇듯

38) “저는 보병학교가 시속 2.5마일(보병의 걷는 속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 하지만 보병학교는 경보병들의 손에 잡혔고 ... 그들은 기계화보병을 전혀 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 그래서 제가 이런 가혹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 무기력함에서 그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요” Herbert, *Ibid.* p. 41.

39) 병과에 따라 집결지, 포병화력지원 등의 교리적 개념이 상이했다. 또한 기갑 지휘관은 전차 포탑에서, 보병 지휘관은 고정 지휘소에서 지휘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본질부터 다른 부대들을 현대전이 요구하는 빠른 교차배치를 위해 공통된 교리로 묶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였다. Herbert, *Ibid.* p. 43.

초안의 작전과 전술 개념에 드퓨이의 일관된 전술관이 깊게 반영되어 있었지만, 단지 과거의 경험만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크게 발전한 방공무기와 방공무기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미공군과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한 병력의 공중이동에 관련한 미육군의 베트남전 경험과 대전차 공격력을 갖춘 공격헬기 등 4차 중동전의 교훈이 아닌 최근의 발전 등도 반영되었다. 이 간결한 초안은 “훈련·교리사령부 전투작전 개념서 초안(TRADOC Draft Concept Paper Combat Operations)”⁴¹⁾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기존의 4차중동전에 관련한 TRADOC의 전훈분석을 종합한 기존의 브래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FM 100-5 작전” 작성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⁴²⁾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범의 개념 초안이 되었다. 이 초안은 곧 예하 센터와 학교에 배부되어 각 기관들에서 작성할 초안들이 공통된 작전개념 하에서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FM 100-5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

1974년 7월 드퓨이는 TRADOC예하 8명의 센터장과 학교장들에게 ‘전투작전 개념서 초안’이 동봉된 개인적인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유명한 ‘프랑스 농부의 냄비 편지’⁴³⁾로 불리게 되며, FM 100-5

40) ‘은-엄폐로 아군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적의 무기를 제압’, ‘기동전에서 전차가 결정적인 무기’, ‘전차로 적방어선을 돌파하여 적의 후방 또는 중요한 지형으로 이동’, ‘장갑차의 엄중한 제압 사격 아래 수류탄과 소형 무기로 도보로 적의 진지를 공격하라’, ‘어느 제대에서나 훌륭한 지휘관은 적은 병력으로 적을 발견할 수 있다’, ‘제압용 사격을 즉시 할 수 있고, 적의 엄폐와 은폐를 위한 기동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이 요점으로 드퓨이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줄곧 강조하던 전술적 개념이었다.

41) 최초 FM 100-5 작전 교범의 초안 제목은 전투작전이었다. Swain, *Ibid*, pp. 122 ~135. ; 남보람, 상계서(중).

42) 문서의 구성은 일반배경, 전투역동성, 공격작전, 방어작전 순으로 FM 100-5 작전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후 발간된 1976년판 교범도 이를 기반으로 목차가 구성되었다.

43) ‘프랑스의 한 농부의 집에는 항상 벽난로에서 끓고 있는 수프 냄비가 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감자, 부추, 닭고기 육수, 소고기 육수, 가끔 당근 같은 것을 던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프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누구나 추가할 수 있고 누

작전 교범의 초안개념과 작성에 모두가 동참해 주길 원했다. 드퓌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본인의 전술관으로 새로운 교리개념을 작성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프랑스 농부의 냄비처럼 모든 재료를 넣어 뛰어난 FM 100-5 작전 교범과 ‘어떻게 싸우는가’ 교범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비록 드퓌이가 스테리처럼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을 선호하지는 않고 통제된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드퓌이가 역시 “군대의 51%가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교리가 진정한 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듯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리 작성을 추진했다. 이렇듯 교리개혁과 작성과정 그 자체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보여준 ‘육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드퓌이의 열정과 역할이었다.⁴⁴⁾

다. 교리의 국내·외적 협력 과정

많은 육군의 내외적 아이디어와 합의를 필요로 하는 FM 100-5 교범의 작성은 TRADOC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다. 우선 독일육군과의 협력은 교범 내용작성에도 교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외적인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다. 독일 육군과의 교리작성 협력은 베트남전 종전에 이어 유럽방어가 미육군의 최우선 임무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주전장인 서독 국경지대에서 독일 육군과 유럽주둔 미육군 제7야전군 간의 작전 개념과 전술적 교리의 협력이 필수적

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첨부된 논문을 약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 저는 당신이 저와 논의하거나 의견, 권고 또는 수정사항, 특히 그것에 대한 추가사항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 또는 그것의 측면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 누가 보든, 얼마나 많이 복사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프랑스 수프 냄비처럼 보관하고 싶습니다” Letter to Major General David E. Ott et al. from General DePuy, 23 July 1974, with draft concept paper, Concept Operations [“Pot of Soup” Letter]. Swain, *Ibid*, p. 121.

44) Brownlee, *Ibid*, p. 180. ; 남보람, 상계서(하) ; Herbert, *Ibid*, p. 46.

이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군사동맹국들 간의 합의를 통해 육군 내적인 합의를 위한 권위 확보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육군참모총장 에이브럼스 장군은 독일육군의 참모총장격인 육군감찰관(Inspekteur des Heeres) 호르스트 힐데브란트 장군(Horst Hildebrandt)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제7야전군과 별도로 드퓨이에게 비공식적으로⁴⁵⁾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드퓨이는 우선 독일 육군 고위층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리, 훈련, 장비 등에 관련한 고위급 연례 회담을 추진하였으며, 미육군과 독일육군의 교리문헌들을 상호 교환했고, 후일 최종적으로는 작성중인 FM 100-5의 초안을 독일육군에 보내 의견을 구했다. 이러한 교류는 교리적으로도 유용하였는데, 독일 육군의 전통적인 기갑척탄병(panzergrenadier) 전술교리에 기반한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교리가 미육군보다 우수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했고,⁴⁶⁾ 작성중인 FM 100-5 작전교범의 기준이 되는 주작전지역이 독일지역이 주축이 되기에 미독연합작전을 위한 교리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독일육군과의 합의가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내 군종간 협력으로 공군과의 협력이 중요했다. 공군과의 협력은 그간 발전된 기술력으로 인한 방공무기제압과 중심상의 적 후방지역에 대한 타격이라는 교리상의 협력 외에도 더욱 중요한 예산을 둘러싼 내부 분쟁을 피하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다.

45) 독일 육군과 TRADOC간의 교류가 비공식적이고 비정형적이어야 하며, 고위급 회담을 공식화하지 않음으로써, 드퓨이는 육군이 나토의 구조를 무시하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후일 주유럽미육군인 제7야전군장성들의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6) ROD A. Coffey, *Doctrinal Orphan or Active Partner? A History of U.S. Army Mechanized Infantry Doctrine*,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00).

1972년에만 하더라도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AH-56 샤이엔 공격헬기 사업은 의회에 의해서 개발이 취소되었는데, 이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CAS)과 중복되는 역할이라는 공군의 주장이 의회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육군은 공격헬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공군과의 내부 예산분쟁을 피해야 한다고 보았고, 육군참모총장 에이브럼스 장군은 공군참모총장인 조지 브라운(George S. Brown)과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쟁 회피를 위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에이브럼스 참모총장은 드퓨이에게 TRADOC부임 초기부터 공군과의 획득사업과 교리적 협력에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드퓨이는 전술항공사령부(Tactical Air Command, TAC) 사령관 로버트 디슨(Robert J. Dixon)장군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긴밀한 협력을 하려고 했다. 지상전 교리 작성과정에 있어서 공군은 큰 이견이나 반대도 없었고, 전자전, 공역관리, 항공수송 등 보조적인 교리분야에서 기여하였다. 하지만 4차 중동전 이후 이러한 협력관계는 발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드퓨이는 초기 개념문서에 “미공군과의 협력을 통한 방공망제압은 이제 지상군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기술하였다. TRADOC과 TAC는 이제 ‘따로가 아니라 더 잘 싸우는 방법(to fight better, not each other)’의 구호 하에 공역관리, 방공망제압, 정찰 및 감시, 전자전, 근접항공지원, 항공수송 등의 주요 관심사를 지정하였고, 사거리를 기준으로 육군과 공군의 영역을 구분하였다.⁴⁷⁾

47) 드퓨이는 디슨 장군에게 “우리는 ... 근접전에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육군체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는... 육군은 가까운 전투 지역에 자원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공군체계와 유사한 체계에 충분한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언급을 하였다. Herbert, *Ibid.*, pp. 69. ; 이 기준은 육군의 직접 사격 무기의 최대사거리를 고려하여 최전선에서 5km까지는 육군의 영역, 육군의 화기가 도달하기 어려운 50km이상은 공군의 영역, 그 사이인 5~50km는 상호협

라. 대외적인 교리적 합의

드퓨이와 TRADOC의 이런 빠른 교리구축과 교범작성은 육군참모총장인 에이브럼스 장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인선에서 에이브럼스는 드퓨이를 TRADOC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스테리를 기갑학교장에, 쿠쉬먼을 제병협동센터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드퓨이에게 독일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하고, 공군과 협력 하도록 추진시켰고, 시스템 분석, 훈련, 전투개발 등에서 TRADOC과 드퓨이의 초기계획안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드퓨이는 ‘육군을 바꾸기’위해 늘 에이브람스에게 보고하고 지원을 받았다.⁴⁸⁾ 이미 1964년에 대장으로 진급한 에이브럼스는 참모총장이자 전쟁영웅⁴⁹⁾으로서 미육군내 막강한 영향력으로 드퓨이와 TRADOC, 그리고 스테리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에이브럼스는 1974년 9월 지병인 폐암으로 59세에 사망한다. 그의 사망 이후 드퓨이와 TRADOC은 후임 육군참모총장⁵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리적 합의를 공적으로 받기 위한 대외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조로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절차상에서 TRADOC은 시나리오 구축에 공군을 참여시켰으며, 공역관리 교범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48) Swain, *Ibid.* pp. 59~68. ; Swain, *Ibid.* pp. 69~74. ; Herbert, *Ibid.* pp. 75~76.

49) 제2차 세계대전에 기갑병과 대위로 참전한 에이브럼스는 수많은 전투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기갑병과에서는 유일하게 수훈십자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두 번 수여받았다. 독일군 전차에 비해 비교적 성능이 낮은 M4 셔먼 전차로 그의 대대가 전쟁기간 약 500대의 독일군 기갑차량을 격파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놀라운 전과와 리더십으로 종전시 임시대령까지 진급하기도 하였다. 종전 후에는 다양한 보직에서 근무하였으며,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모두 참전하였고 1968년 주베트남미군사령관이 되어 미군철수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1972년 참모총장에 임명된다. 군경력 동안 수훈십자장 2회, 동성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 2회, 육군수훈장 5회 등 38번의 각종 훈장과 기장을 수여받았다.

50) 후임 참모총장은 프레더릭 웨안드(Frederick C. Weyand) 장군으로 TRADOC의 교리작성에 큰 관심이 없었다.

1974년 10월 드퓨이는 독일의 10월축제(Oktobefest)⁵¹⁾를 모티브로 한 컨퍼런스 ‘옥터버페스트(Octoberfest)’를 기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포트 녹스에서 개최하였다. 이 옥터버페스트는 전력사령부(FORSCOM) 사령관인 커윈 장군의 지지로 FORSCOM과 TRADOC이 함께 조직한 컨퍼런스로 중대급 수준의 전투 기술과 기법에 관련한 주제를 다뤘고, 본토 내에 위치한 미육군 관계자와 유럽주둔미군(제7야전군), 한국 및 아시아권 주둔미군(제8야전군), 파나마와 알래스카 등 전 세계의 과병된 미육군 대표들도 참석했다. TRADOC은 드퓨이가 강조했던 4차 중동전의 교훈, 엄호망, 제압화력, 제병협동, 지형활용, 차장연막 등을 발표했는데, 이렇듯 옥터버페스트는 단순히 전술소개를 위해 공개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드퓨이의 전술관을 전군의 지휘관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드퓨이와 스테리는 전통적인 육군의 전술관과 베트남전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4차 중동전이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옥터버페스트는 육군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스테리와 기갑학교의 역할이 인정받았다. 참석자들은 그들이 컨퍼런스를 통해 일관적으로 설명된 사항들에 대해 큰 반대나 비판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드퓨이는 일종의 합의라고 인식하였으며 만족스러워 했다. 하지만 이는 TRADOC의 잘 준비된 의견에 참석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딱히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후일 이 옥터버페스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당시에는 부동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많은 인사들이 드퓨이 장군 전역 후 반대의사를 많이 표명하였다. 특히, 유럽주둔 미육군은 TRADOC의 새로운 훈련방법을 채용하지 않는 등 반발이 심했다.⁵²⁾

51)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에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 열리는 맥주 축제이다. 공식적으로는 옥터버페스트(Octoberfest)라고 부르며 10월 맥주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옥토버페스트 컨퍼런스를 성공이라고 인지한 드퓨이는 즉시 후속 추진을 진행하였다. 일단 공식적으로 육군 상층부 인사들의 상당수가 드퓨이의 전술관과 TRADOC의 교리적 주도에 대해 최소한 암묵적인 승인을 한 셈이 되었으므로 드퓨이는 대외적으로 독일군과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1974년 10월말 드퓨이는 독일 육군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독일연방군의 FM 100-5격인 HDv 100/100⁵³⁾과의 연계를 확인했다.⁵⁴⁾ HDv 100/100은 방어자는 진지를 활용하고 노출된 공격자에게 화력을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대규모 집중화력, 장애물, 내부기동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공격을 약화시킨다면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파괴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적의 주공을 파악하고 아군의 지형활용, 유연성, 중심방어구축, 기동적인 예비대 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가능한 전방에서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적전차의 전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개념을 FM 100-5 작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데, 작전의 1976년판 ‘적극방어’의 ‘5장 방어’에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다.

52) Herbert, *Ibid*, pp. 47~50.

53) *HDv 100/100 Command and Control in Battle* 전투에서의 지휘통제.

54)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청년장교 드퓨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기갑척탄병 교리는 그의 전술관과 FM 100-5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 도입된 미국의 기계화보병은 인원수송장갑차(APC)를 갖추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군을 모방하여 ‘장갑보병(armored infantry)’을 구성하였으나 본질적으로 독일의 기갑척탄병 교리와 괴리가 있었다. 드퓨이의 엄호하 기동을 강조하던 ‘화력기지’ ‘엄호망’ 전술관과 거의 일치하는 기갑척탄병 전술은 4차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의 대전차무기 제압 해결책과도 유사하였다. 드퓨이는 독일과의 교리일치성은 물론이고 기존 미육군의 비탑승보병 중심의 보병교리에서 보병, 포병, 방공 등이 지원하는 기갑을 중심으로하는 기갑 및 기계화보병 교리로 전환하고자 했다. Coffey, *Ibid*. ; Herbert, *Ibid*, pp. 63~64. ; Doughty, *Ibid* ; 비탑승(unmounted) 보병은 기계화, 차량화된 보병인 탑승(mounted)보병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전투시 장비(차량, 수송장갑차, 보병전투차 등)에 탑승하지 않고 개인화기(소총)을 주력 무기로 하는 보병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4. 교범작성과정 중 반발

가. 최종 작성명령과 반발

드퓨이는 1976년 상반기까지 FM 100-5 작전을 작성하기로 예하 학교장들에게 명령하였다.⁵⁵⁾ 드퓨이는 교범 작성 명령을 하달한지 2달 후인 12월에 학교장들에게 초안을 제출받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학교장들에게 다음 일정과 함께 필요하면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⁶⁾ 이전부터 보병센터와 기갑센터 사이에 병과의 관점과 교리작성 권한에 대한 우선권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충돌이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FM 100-5 작전교범의 작성이 시작되고 작성실무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과 센터장급으로 상향되자 이들과 드퓨이 사이에 충돌이 가시화 되었다. 교범작성에 열성적인 드퓨이와 관심이 적은 병과학교장들과의 교범작성의 참여도⁵⁷⁾ 차이뿐 아니라 전문관 차이

55) “나는 우리가 미육군의 모든 중요한 야전 교범을 다시 써서 1976년 6월 30일까지 출판할 작정입니다 ... 우리는 충분한 토론에 참여했고, 충분한 브리핑을 들었고, 미 육군의 학교 시스템에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싸우는가(how to fight)에 대한 최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연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리 출판물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제도화하고 영구화해야 할 때입니다” Herbert, *Ibid*, p. 49. ; “그 기한은 1976년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중략) 조만간 미팅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FM 100-5’의 초안을 감수할 것입니다. 미팅 일주일 전에 교범 초안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과업을 부여합니다. 항공학교장은 ‘육군 항공’ 교범 초안을 완성해 일주일 전에 참석자들에게 보내시오. 보병학교장은 ‘대전차 작전’에 대해 기갑학교장과 토의해 마찬가지로 결과물을 일주일 전에 보내시오. 여러분이 보낸 내용을 가지고 미팅 날 토의할 것입니다” 남보람, 상계서(상).

56)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이 일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Herbert, *Ibid*, p. 49.

57) 이 첫 초안검토 회의에서 어떤 이는 골프채를 들고 오고 또 어떤 이는 부하들을 시켜 만든 개조식 안을 가지고 왔다. 드퓨이 장군은 ‘골프채를 사용할 일은 없을

가 문제였다.

이 회의에서 보병학교의 학교장인 타플리 소장은 전차가 결정적인 무기라는 개념을 지우려 노력하고, 비탑승보병의 항공수송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는 드퓨이의 전차 중심 기동전 전술관과 전통적인 보병병과의 전술관 차이가 극명하게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드퓨이는 FM 100-5 초안의 주작성자인 쿠쉬먼의 FM 100-5 초안이 미숙하며 구체적이지 않다며 거부했다. 드퓨이는 최초 본격적으로 FM 100-5 교범작성을 위해 제병협동센터(CAC)와 센터장인 쿠쉬먼 소장에게 주 작성임무를 부여했고, 작성을 독려하였으나 애초에 작성 방향에 큰 이견이 있었다. 쿠쉬먼의 초안은 타 학교장들의 초안처럼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열의가 부족한 것보다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쿠쉬먼은 육군 내에서 최고 수준의 지성인으로 손꼽힐 학구적인 엘리트 장교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⁵⁸⁾

쿠쉬먼과 드퓨이 모두 육군 발전을 위한 훈련에 열정적이었고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이었지만, 이들은 교리에 대한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랐다. 쿠쉬먼은 지식인으로서 누구보다 사려깊고 반성적이며, 모든 아이디어에서 장점을 인정하는 인격의 소유자로 개인이 인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을 때 엄청난 창조적 잠재력이 발휘된다고 보았다. 그는 지휘참모대를 지휘감독하

것'이라고 면박을 주었고, 개조식 안에 대해서 '애들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금이라도 교리와 관련 없는 말을 하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하시오" 하고 대변에 잘랐다. 남보람, 상계서(상).

- 58) 1944년 미육군사관학교를 12등으로 졸업하여 임관한 쿠쉬먼은 공병으로 임관하여 제2차세계대전시에 태평양 전구에 참전하였다. 전후 뉴멕시코에서 핵무기 개발프로젝트에 참여, MIT공대에서 위탁교육, 지휘참모대 교관, 육군장관실 보좌관, 육군참모총장 고문실 등의 엘리트 경력을 거쳤다. 또한 야전에서도 독일군무와 베트남에서 3번의 과병을 경험 등 다양한 군무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1공수사단의 사단장으로 군무후 에이브러햄 참모총장과 드퓨이의 지명으로 CAC의 센터장이 되었다. Herbert, *Ibid*, pp. 52~53.

며, 그의 학생장교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으로 단련하고, 자신만의 생각이 발전하여, 지적으로 야전에서 준비가 되길 원했다. 그러한 그의 개념에서 교리작성은 전쟁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최선의 생각을 담는 것을 의미했다.

쿠쉬먼이 작성한 초안 교범 ‘방어에서의 사단(Division in Defense)’은 첫 페이지에서 1934년 보병학교에서 발간된 ‘전투에서의 보병(Infantry in Battle)’의 문구 “전술은 생각하는 사람의 술(art)입니다. 학습할 수 있는 특정 원칙은 있지만 규칙은 없습니다”를 인용했다. 그의 초안은 1922년 이후 미군교리의 정석이었던 전쟁의 9가지 추상적 원칙⁵⁹⁾을 강조하며, ‘방법’과 ‘왜’를 모두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미군 병사의 놀라운 기발함과 끝없는 상상력에서 전투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쿠쉬먼은 본인과 그의 참모들이 작성한 교범 초안에 스스로 상당히 만족했으며, 미 육군 전투 교리의 기준교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드퓨이가 생각하는 작전 교범에는 드퓨이의 전술관에 따라 제압, 엄호망, 간접접근, 적의 취약점파악, 빠른 전력의 집중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했을 것이지만 쿠쉬먼은 정해진 규칙보다는 구체적인 적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범에는 엄호망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간접접근은 선호되나 상황에 따라 적의 강한방어에 정면으로 맞설 수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현대전장을 설명하면서 제병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최고의 무기체계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전차가 “결정적인 무기”임을

59) 군사학계에서 다루는 전쟁의 원칙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이하나 미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1.목표의 원칙(Objective), 2.공세의 원칙(Offensive), 3.집중의 원칙(Mass), 4.병력절약의 원칙(Economy of force), 5.기동의 원칙(Maneuver), 6.지휘 통일의 원칙(Unity of command), 7.경계의 원칙(Security), 8.기습의 원칙(Surprise), 9.간명의 원칙(Simplicity) 등이 있다. *ADP 3-0 Unified Land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2011).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쿠쉬먼의 초안은 드퓨이의 강한 신념으로 형성된 전술관을 대부분 비판했다. 하지만 드퓨이가 이 초안에 기입한 논평은 “미숙하며 ... 우리는 토론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 무기 효과, 제압, 이동성, 차단 등과 관련이 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등, 등”⁶⁰⁾과 같으며, 오히려 냉정하기까지 하다. 심지어 드퓨이는 새로운 초안판을 위한 개요를 작성하여 쿠쉬먼에게 주었고, 다음 해인 1975년 봄에 예정되어 있는 후속회의에 다시 작성할 기회도 부여하였다.

나. 체계분석 기반 교리작성

TRADOC은 전투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상세한 무기 시스템 분석으로 육군의 무기 획득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퓨이는 쿠쉬먼의 이론 같은 비기술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인정할 수 없었다. TRADOC 사령관 부임 이후 드퓨이는 “육군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육군의 필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질서 있는 과정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바꾼 무기체계획득과정의 시나리오처럼 교리 역시 상세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러한 분석은 능력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교리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했고, 적무기에 대한 상세한 비교 분석으로 발전해야 했다. 4차 중동전 이후 소련식 무기와 교리에 대한 자료가 육군에 상당량 수집되었고, 육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정량화된 분석을 시작했다. 드퓨이는 이 분석에서 전술적 영감을 얻었는데, 당시 유럽에서 숫적으로 우위인 바르샤바조약군과의 전면전에서 벌어질 ‘수적 우세인 적과의 전투(fighting outnumbered)’⁶¹⁾였다. 드퓨이는 “현재의 교리, 최근

60) Herbert, *Ibid.* p. 57.

61) 숫적 우위와의 전투는 드퓨이만의 독창적인 전술적 영감이라기 보다는 당시 TRADOC의 화두였다. 교면이 4차 중동전의 잠정적인 교훈을 ARTEP과 훈련회보에

의 군사 경험 ... , 적의 무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의 전술은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결국 드퓨이가 고민한 전술교리의 시작은 적과 아군 무기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출발하며, 여기서 냉혹하고 엄연한 사실에 기초한 구체화된 전술을 개발하여 모호한 추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리발전의 종결이었다. 드퓨이에게 받은 강한 요구로 TRADOC은 최근의 사례를 조사하고, 사거리 함수로 계산된 소련 무기의 명중 확률 같은 육군 물자체계 분석국(Army Materiel Systems Analysis Agency)의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술을 개발해야 했고, 드퓨이가 묻는 미국의 전차포 포수들이 각 소련의 무기 체계와 교전할 수 있는 사거리와 같은 고도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야 했다.⁶²⁾ 1964년부터 미육군은 기계화보병전투차량(Mechanized Infantry Combat Vehicle, MICV)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M2브래들리 보병전투차(IFV)의 전신이 되는 사업은 모호한 요구도와 활용도로 약 10여 년간 국방부(DOD)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보병전투차는 드퓨이의 전술관에서 필수적인 무기체계로 FM 100-5작성이 중심이 되어 교리개발과 무기체계개발의 분석을 연결시켰다.⁶³⁾

통합하면서 구체화된 개념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How to Win Outnumbered”의 제목으로 게재한 후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큰 병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이스라엘 전차승무원의 높은 수준에 기인한 전차전의 승리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62) Romjue, *Ibid.* p. 4.

63) “숫적 우위인 적과 싸우는 전투에서 전차주도의 전투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ICV가 전차와 함께 이동하며 적의 대전차무기를 장거리에서 제압하여야 하며, 엄호망 개념하에서 제압사격을 통해 하차보병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BMP의 73mm주포 사거리 이상에서 선제적으로 격파할 수 있어야 하며, 대전차유도미사일(ATGM)을 발사할 수 있어야 기관포 등에서 보호가 가능하다. 현재 육군의 장갑차인 M113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드퓨이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용상으로도 MICV는 소련군의 BMP나 독일군의 Marder보다 적게 들어야 했으며, 드퓨이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 외에도 순수 전술교리도 이 체계분석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1950년대 초부터 육군의 방어전술교리는 크게 ‘기동방어(mobile defense)’와 ‘지역방어(area defense)’로 제시되어 있었다. 기동방어는 기갑제대로 적 공격전력을 파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지역방어는 보병진지를 중심으로 기계화된 포병화력으로 지역을 유지하는데 중점이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전 이후 유럽전역에서 방어전술로서 이 두 가지 방어형태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당시 미육군의 유럽주둔 병력부족으로 인해 할당된 책임지역의 방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미육군은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이에 보병학교에서는 ‘전력지향방어(force-oriented defense)’라 불리는 전술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이 전술은 공격자의 전투력을 계획된 지역에 끌어들인 후 소모전투를 벌여 약화시키는 개념으로 전면전을 대비한 보병학교의 노력이 반영된 산물이었다. 이후 1974년 8월, 보병학교는 이 개념을 대전차미사일(ATGM)로 요새화된 진지를 기반으로 하는 ‘강점방어(strongpoint defense)’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드퓨이의 분석⁶⁴⁾에 의해 폐기되었고, 기갑학교의 데이비드 탐미넨(David L. Tamminen) 중령이 주축

이것이 육군의 능력의 핵심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레징거 장관에게 MICV와 우리가 독일 동맹국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채택해야 할 전술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보시다시피, 저는 군대가 이번 전투에서 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Herbert, *Ibid*, pp. 78~79.

- 64) 고먼의 “다수와의 전투” 논문과 드퓨이의 전술관, 4차 중동전의 교훈 등이 통합되어 발전한 “개념조안서 전투작전(Combat Operations)”에서 드퓨이는 “방어의 기본 개념은 자신의 무기 사용을 최적화 하는 것, 자신의 취약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형의 모든 가능한 이점을 활용”, “공격자의 계획과 행동을 예측하고 물리치는 무기 배치와 행동을 상호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대전차 방어는 대장갑/대전차 무기체계 구축이며, 미국의 대전차 무기들의 사정거리, 정확도, 사격속도 등 논의”, “엄호망으로 적 진지와 방공망제압, 공격하는 적 전차의 효과 33%이상 감소”, “행동의 중요단계에서 일정량의 포병지원” 등으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었다. TRADOC, “Combat Operations”, Draft concept paper enclosed in Deputy to Tarpley(1974). Swain, *Ibid*, pp. 121~136.

이 된 전술개발팀은 미육군 제5군단의 책임지역인 독일 국경인 풀다(Fulda) 근방의 지역을 배경으로 위계임을 구축하고, 이 연구를 훈펠트I(Hunfeld I)로 명명하였다. 기존의 CACDA가 개발하는 유럽시나리오가 있었지만 드퓨이는 스테리와 기갑학교에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옥토버페스트를 기갑학교가 위치한 포트 녹스(Knox)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체계분석 등으로 1974~1975년, 약 2년간 미육군은 4차 중동전의 교훈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1975년 2월 드퓨이는 TRADOC의 전훈분석을 종합하여 “중동 전쟁이 미군의 전술, 교리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Implications of the Middle East War on U.S. Army Tactics, Doctrine and Systems)”⁶⁵⁾이라는 제목으로 선정된 인원에게 기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술과 교리 이상의 문제를 미육군에게 제기하였는데, 이전의 육군이 경보병으로 베트남전을 수행하였다면 현재의 유럽과 중동에서는 대규모 기갑전이 주축인 전면전을 수행함을 의미하였고, 이에 따라 드퓨이는 육군의 전술적인 문제들을 고민했다.⁶⁶⁾

다. 본격적인 교범 작성의 시작

1975년 4월, 드퓨이는 쿠쉬먼이 교범작성 참여를 거부하자 총괄

65) Swain, *Ibid*, pp. 75~112.

66) 그는 4차 중동전에서 이전의 미국이 경험한 전쟁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새로운 치명성(new lethality)'이라는 징후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향상된 전차포, 사격통제장치, 장거리화포, 대전차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등이 발생시킨 빠르고 막대한 사상률은 역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적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추론되었다. 그리고 4차 중동전에서의 이집트와 시리아 같이 유사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소련의 도움으로 고도로 장비된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국가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미군이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많은 수의 장비를 갖춘 적군과 초전부터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Herbert, *Ibid*, pp. 31~36.

기능을 CAC에서 TRADOC본부로 완전히 이전하였다. 드퓨이와 쿠쉬먼의 반목은 1974년 12월 첫회의 시작부터 1975년 5월 후속회의까지 반년간 지속되었다. 이미 4월 쿠쉬먼은 초안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의만 참석했다. 드퓨이는 오랜 경험에서 보통의 인간에게는 진정한 주도성(initiative)은 힘들며 조직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간명한 용어로 명확하게 임무와 훈련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리를 복잡한 부대의 작전 활동을 정리하는 도구로 여겼고, 현대 전장에서 필수적인 전술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드퓨이에게 교범은 야전부대들의 활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의 통로였고, 교리 및 훈련—소요—개발—획득 절차로 구성된 체계의 시발점이 되어야 했으며, 궁극적으로 육군을 바꾸기 위해 교리를 바꾸는 제도상의 목적이 사명처럼 있었다. 반면 쿠쉬먼에게 교리는 제도적 목적보다는 진리는 찾는 것에 있었으며,⁶⁷⁾ 이성에 의해 최고의 가능한 생각을 제공해 주는 구속력이 없는 지침일 뿐이었다. 드퓨이가 원하는 교리의 내용은 소련과 미국의 무기 능력에 상세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된 교범으로 사용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규칙이었고, 이를 위해 면밀한 기술 분석과 위계임을 기반으로 교리를 작성하길 원했다. 쿠쉬먼은 교범에서 그가 몸담았던 육군의 전통을 충분히 유지시키길 원했기에, 그의 초안은 과거에서 문구를 인용하고 과거의 교범과 같은 형태를 유지했다. 정반대로 드퓨이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변혁을 원했다. 육군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현대전의 치명성에 기반한 긴박감을 교범의 형태와 문장으로 전달해야 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들로 인해 드퓨이는 충분히 쿠쉬먼의 작성안이 자신의 신념과 모순됨을 깨달았고, 결국 쿠쉬먼의 ‘사고하는 토론’과 드퓨이의 ‘명확한 것을 가르치는 것’의 근

67) “유효한 교리를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 이론, 경험, 귀납적 추론에 의해 ... 보통 가장 잘 작동하는 것에 대한 계몽적인 설명 ... ”
Herbert, *Ibid*, p. 55.

본적인 관점 차이로 인해 쿠쉬먼이 만족할 만한 교범을 결국 쓰지 못할 것을 인지했다. 결국 드퓨이는 CAC에 부여했던 FM 100-5의 주작성 임무를 철회하고, TRADOC에서 직접 작성할 팀을 편성했다. 마지막 후속회의에서 드퓨이는 일관성, 단순성, 직접성, 주장성, 명확성 등 본인의 철학이 명확한 작성지침⁶⁸⁾을 하달했다. 그리고 각 장의 작성을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소위원회에 할당했는데, 주요 할당을 보면 공격은 훈련부사령관인 고먼 준장, 방어는 보병학교장인 타폴리 소장, 정보는 TRADOC 사령관인 드퓨이 본인으로 지정하여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기간이 종료하면 작성지휘자가 내용을 전체에게 브리핑하게 했다.

드퓨이의 성향대로 교범작성은 광범위하게 공개된 작성과정 보다는 소수의 작성팀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작성팀은 ‘보트창고갱(boathouse gang)’이라고 불렸으며, 에드윈 스크라이브너(Edwin G. Scribner) 대령을 팀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⁶⁹⁾ 이 시기부터 드퓨이는 엄격히 외부로 자료공개를 통제하였으며, 제병협동에 관련 교범들⁷⁰⁾에 대한 작성을 병행하였다. 작성팀에게 드퓨이는 ‘고상하거나 철학적’이지 않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할 것을

68) “일관적이며 ...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 중대, 대대, 여단, 사단 수준에서 우리 지휘관들이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원칙에 집중하기 위한 것 ...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단일 우발적 사건들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 ” Herbert, *Ibid*, pp. 58~59.

69) TRADOC 사령부본부 주둔지인 포트 먼로에 과거 요트클럽의 보트를 보관하는 낡은 창고가 있었는데, 이를 개조하여 작성팀의 사무실을 만든 것에서 보트하우스갱이라는 명명이 기인한다. 이 작성팀은 TRADOC의 훈련참모차장인 고먼 소장의 작전연구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이 고먼의 훈련문헌의 작성할 때 드퓨이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드퓨이는 작성준비과정 내내 이들을 개인참모로 활용했고, 업무성고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들을 재기용하였다. 이들은 아예 드퓨이의 참모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컨셉팀’, ‘보트하우스갱’, ‘전술개념사무실’ 등으로 불렸다. Herbert, *Ibid*, pp. 86~87.

70) TC 7-10 The Rifle Company(보병소총중대), FM 71-2 The Tank and Mechanized Infantry Battalion Task Force(전차 및 기계화보병 특수임무대대), FM 90-3 Desert Operations(사막작전) 등 남보람, 전게서(상).

강조하였다.⁷¹⁾ 사용자들이 읽는 모든 장에 화력우위와 제압의 필요성 메시지를 반복 강조하고, 직접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읽을 수 있어야 사용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화력우위와 제압은 아군이 수적으로 열세상태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는 핵심이론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초기부터 아군의 전력을 보호하고 생존하여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전력집중을 통해 유리한 전력비율로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⁷²⁾

1975년 가을, 고먼이 강조하던 ‘수적 우세인 적과 전투 및 승리(fight and win outnumbered)’와 드퓨이가 필수로 강조하던 고먼의 표현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win the first battle)’가 FM 100-5의 가장 중요한 기본개념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교범의 기준이 되었는데, 베트남전의 관습과 단절을 의미하고 유럽에서의 전면전의 재집중을 육군 내부에 알리는 선언 같은 것이었다. 이밖에도 전차의 결정적인 역할, 기계화(장갑화)의 중심성, 대전차전의 중요성, 무기체계와 전력비율에 대한 강조, 전술공군력의 막강한 위력, 명확(clear)·단순(simple)·구체(specific)·단호한(assertive) 등의 언어가 있었다. 이러한 만족스러운 개념들은 출판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12월 육군지휘관 컨퍼런스에 일정을 맞춰 초안교범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잠재적 반대를 물리치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했다.

71) 남보람, 상계서(상) ; 드퓨이는 현대전인 유럽전역에서 이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동원을 통한 전면전이 불가하고 첫전투에서 승리를 강조했지만, 교범에 대해서는 예비군 장교(reserve officers)와 징집병(draftees)들이 읽고 활용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Herbert, *Ibid*, p. 87.

72) 드퓨이가 생각하는 좋은 전술은 전장에서 집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대담한 집결, 공군의 지원, 리더십 등을 강조하였다.

5. 교범의 완성 과 논란

가. 최종 합의

10월 초, 드퓨이는 커윈 장군의 후임 FORSCOM사령관인 버나드 로저스(Bernard W. Rogers) 장군의 지지⁷³⁾를 받기 위해 전해 10월 개최된 옥토버페스트와 유사한 10월 전력사령부-교리·훈련사령부 컨퍼런스(October FORSCOM-TRADOC Conference, OFTCON)를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 FORSCOM의 지지를 받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었다. 우선 미대륙 내에 있는 모든 야전부대가 FORSCOM의 소속이었고, 예하의 11개 사단 중 7개 사단이 기갑/기계화부대가 아닌 공중기동사단, 공수사단, 보병사단 등으로 전통적인 보병이었으며, 이들은 보병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베트남전의 경험이 많았고, 비탐승교리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의 유산과 결별하는 유럽전역중심과 기갑/기계화 작전교리에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쿠쉬먼 장군의 이전 직책이 101공수사단의 사단장이기도 했으며, 보병병과에서 영향력 있는 장교였다. 교리작성 간 보병학교와 CAC가 반발하여 쿠쉬먼과 보병병과가 작성과정의 상당부분에서 제외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73) 전력사령부(FORSCOM)와 훈련·교리사령부(TRADOC)이 분리하기 직전 대륙군사령부(CONARC)의 사령관인 커윈 장군이 신설된 FORSCOM의 초대사령관이 되었고, 당시 CONARC의 부사령관이었던 드퓨이와 관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커윈 장군 시절에는 TRADOC은 FORSCOM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 버나드 로저스 장군은 1940년 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했지만, 제2차세계대전에는 참전하지 않고 육사에서 경제학, 행정학, 역사학 등을 강의했다. 하지만 다시 야전으로 돌아가 한국전쟁,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사단장, 육군인사참모장, FORSCOM사령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보병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OFTCON에는 육군 참모총장 웨안드 장군, FORSCOM과 TRADOC의 고위급 장교단, 예비군, 주요 해외사령부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주요의제로는 헬리콥터에 의한 전력의 전술적인 이동과 중강도분쟁에서의 전차와 헬리콥터의 활용을 다뤘다.⁷⁴⁾ 이렇게 헬리콥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육군이 주요 획득사업으로 내세운 ‘Big Five’ 중에 2개가 헬기사업이기도 했지만 비탑승보병들의 반발을 달래야 했기 때문이었다. 드퓨이는 바르샤바조약군과의 전면전에서 발전된 방공망의 존재로 헬기작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치적으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⁷⁵⁾

OFTCON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자 전해와 동일하게 드퓨이는 주유럽미군과 독일군을 만나기 위해 독일로 이동했다. 1975년 10월말 독일에서 열린 3일간의 회의를 통해 드퓨이는 FM 100-5의 초안을 독일군 최고위층에게 직접 브리핑하였다. 독일쪽에서는 HDv 100/100에 대해 브리핑하였으며, 양측은 두 교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토의했다. 드퓨이는 초청자인 독일 육군의 육군참모차장격⁷⁶⁾인 루디거 라이허르트(Rüdiger von Reichert) 장군에게 FM 100-5를 자세히 연구하여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독일에서의 귀국한 드퓨이는 방문을 ‘전폭적인 성공’으로 평가했고, HDv 100/100과 FM 100-5의 ‘중요한 차이는 없다’고 평가했다.⁷⁷⁾

74) 이 회의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부대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101공수사단이 헬기이동으로 주력이 되는 강습사단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75) 드퓨이도 대전차전에 공격헬기가 유용하다는 것과 4차중동전에서 헬기와 오토바이 등으로 대전차미사일팀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카할리니, 전게서. ; Herbert, *Ibid.*, p. 90.

76) 육군부감찰관(Stellvertretender Inspekteur des Heeres)

77)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국경을 따라 전진 방어하는 임무를 이해합니다. 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모든 의도와 목적이 동일합니다. 방어 전술과 기술의 원리는 같습니다”. Herbert, *Ibid.*, p. 66. ; 하지만 ‘적극방어’는 드퓨이, 고먼, 스테리의 성향과 전술관을 기반으로 워게임을 통해 구체화되었는

드퓨이는 OFTCON과 독일군과의 회담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11월에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자신의 작성 지지세력을 규합했다. 드퓨이, 고먼, 스테리는 교범의 가장 중요한 6개의 장을 다시 할당하여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1장 미군의 목표’는 드퓨이, ‘2장 현대전장의 현대무기’는 드퓨이와 고먼, ‘3장 어떻게 싸우는가’는 드퓨이와 스테리, ‘4장 공격’과 ‘5장 방어’, ‘6장 철퇴’는 스테리가 마무리 작성을 주도했다. 쿠쉬먼은 읍저버로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지만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장성급 장교의 참여는 없었다. 이 작성을 마지막으로 교범의 초안본 작성이 완료되었다. 최종 합의과정인 12월 육군지휘관 컨퍼런스에서 드퓨이의 브리핑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교범 초안 사본을 제공하고 1976년 2월까지 별도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1976년 1월에 독일군의 최종 동의를 얻었고, 4월에는 일러스트 작업을 마무리하여 최종판을 완성했다. 7월 1일부로 교범은 육군의 최종 승인이 완료된 이후 인쇄가 시작되었다. 교범의 배포가 시작되자 드퓨이는 ‘보트창고갱’ 작성팀에게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하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데, 강한 영향을 받은 독일 육군의 교리와의 상이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 독일군의 방어교리는 지형중심의 은폐와 기습을 강조하고, 잘 준비되고 통제된 사격을 중심으로 화력을 강조하였다. 반면 적극방어는 강력한 화력으로 결정적인 전투 전까지 적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이 있었고, 결정적인 전투시에는 기갑이 주요노력의 무기였고, 기계화보병을 포함한 다른 모든 병과가 전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David L. Tamminen, “How to Defend Outnumbered and Win”, *Field Artillery Journal*, Fort Sill, U.S. Army Field Artillery School(1976). 이런 기술적인 전술관의 차이보다도 본질적으로 독일은 추상적인 ‘전력비율(force ratios)’만이 있었고, 사기, 리더십, 측정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가미했고 계량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방어의 경우 적과의 전력비를 숫자로 명시하였으며, 추상적인 요소를 중시하지 않았다. ; 공격작전에서 결정적인 전투에서는 아6:적1, 방어시에는 아1:적3 등으로 전력비율을 설정하였다. 다만 방어의 비율에서 강력한 화력과 공군의 지원이 있다면 아1:적5 정도로 잠시동안도 가능하다는 화력의 적용과 예외를 두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은 작전을 예하부대의 자유로운 행동을 중시하였지만, 적극방어는 통제된 큰 시스템으로 보고 특정한 임무들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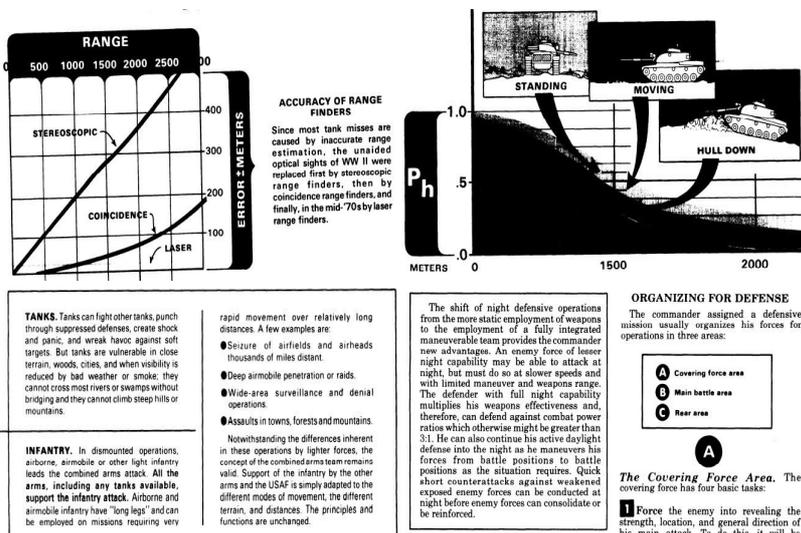
입니다. 그 충격은 ... 천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교범은 군대의 방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며 공로를 치하했는데, 이는 ‘드퓨이 본인의 영향력으로 육군을 바꾼다는 사명’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나. 교범의 주요구성

작성된 FM 100-5 작전 1976년판은 ‘1장 미군의 목표’에서 적이 미군의 무기같이 효과적인 무기로 무장하며, 미육군은 적은 병력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상대하며,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를 강조한다. ‘2장 현대전장의 현대무기’에서는 강조하던 치명성에 관련한 내용으로 전차·보병·야전포병·방공·항공력·육군항공·야간전투·지뢰전·전자전·전술핵무기·기동과 탬포 순으로 무기의 성능 향상과 전장에서의 운용술에 대해 일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도왔으며, 통계자료와 무기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장 어떻게 싸우는가’에서는 중부유럽의 중요성과 현대전장의 특징, 지형을 이용한 은·엄폐를 활용한 생존의 강조, 전장의 역동성을 강조하는데, 방어자는 3배의 적을 상대해야 하고 공격에서는 결정적인 지점에서 6배의 전력을 요구하는 전력비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력비는 기존처럼 병력에 의존하는 전력이 아닌 화력과 무기의 전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자주포, 주력전차, 기계화보병, 방공무기, 공격헬기 등을 사용하여 전투력을 빠르게 이동시켜 집중시키는 기동을 강조하였다. ‘4장 공격’에서는 적의 방어화력을 제압하고, 충격을 주며, 후방을 공격하는 간접전략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체병협동을 통해 전차를 주요 무기로 결정적인 전투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했다. ‘5장 방어’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전장환경에서 지휘관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

고, 중요한 시기와 장소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방어도 공격과 동일하게 제병협동과 기동력을 강조하였으며, 지휘관의 전투결정 능력 역시 강조하였다.

<그림 1> FM 100-5 작전 1976년판 기술 내용



출처 : FM 100-5 Operations(1976) p. 2-5 ; p. 3-11 ; p. 4-7. ; p. 5-10

교범의 핵심내용인 2~5장을 보면, 기존의 모호한 기본원리, 전쟁사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현대무기의 제원, 운용술 등을 기반으로한 전투에서 이기는 전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모호한 독자층을 거부하고, 병과별(기갑, 보병, 기계화 보병, 야전포병, 전투공병, 통신 등), 계급별(장군, 대령, 중령, 대위, 분대장, 포수 등)의 임무를 직접 기입함으로써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상용제품의 사용설명서 수준으로 기술하려고 했다.

다. 교범 공개 후 논란

FM 100-5 교범은 7월에 초도 출판 후 육군본부 참모부, 각 사령부본부, 각 군단 및 사단, TRADOC예하 각 학교들에 1,000부씩 배부가 되었다. 8월에는 현역육군, 연방예비군, 주방위군 등 모든 부대들의 전투병과 중대급 부대에 2만부 가량이 배부되었고, 지속적으로 총 15만부가 배부되었다. 9월에는 해외까지 포함한 모든 육군 사단들에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새 교범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범 배부 전 중장으로 진급한 스타리는 유럽에 주둔중인 제5군단의 군단장으로 직책을 수행 중이었고, 군단의 상급부대인 제7야전군의 사령관인 조지 블랜차드(George S. Blanchard) 장군과 인근 군단인 제7군단의 데이비드 오트(David E. Ott)⁷⁸⁾ 장군을 설득하여 군단의 방어작전 계획을 새로운 교리에 따라 작성하게 했다. 드퓨이는 육군이 해·공군과 같이 정교한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로 무장한 사람’의 구조에서 ‘승무원을 보유한 무기’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드퓨이는 교리부터 바꾸고 조직 및 장비도 교리에 기반하여 바뀌길 원했다. 이후 ‘사단 재구성 연구’, ‘육군 예산 및 조달 지원을 위한 무기체계 분석’, ‘일관된 동맹군 교리’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이렇게 적극방어 교리는 단순히 ‘교범과 교리의 전환’이 아니라 육군을 바꾸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다.

FM 100-5 교범이 출판되어 공개되자 교범의 출판은 군사계에서

78) 데이비드 오트 장군은 교범작성 기간인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포병학교의 학교장으로 있었고, 포병학교는 적극방어 작성에 호의적이었으며, 이후 공지전투 작성에 기본개념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TRADOC과 드퓨이, 스타리의 지지세력이었다.

미육군이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재배치되는 전략적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며 관심을 받았다. 현대무기의 치명적인 위력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와 구체적인 세부사항, 그리고 명확한 묘사로 현대전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전술적인 논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제시된 교범은 군사 전문 저널들의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교범에 대한 군사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좋았고, 호의적인 평가 쪽에서는 열광적으로 ‘교리 르네상스’, ‘미육군의 이정표’,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 ‘방어의 정수’, ‘최고의 작전교범’ 등으로 찬사를 보냈다.⁷⁹⁾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비평가들이 다양한 경로에서 쏟아졌다. 초기 비평가들은 크게 ‘공격을 희생하면서 수비를 너무 강조’, ‘힘의 비율과 적군의 파괴를 강조하면서, 전쟁의 심리적 측면을 무시’, ‘유럽에서의 전투에 너무 좁게 초점을 맞추어서 세계 다른 곳의 우발 상황을 배제’ 등으로 정리되는데, 점차 많은 비평가들이 날카롭고 광범위한 질문과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초기 비평 중 하나로 NATO의 연합최고사령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 사령관 알렉산더 헤이그(Alexander M. Haig) 장군에게서 드류이에게 온 편지가 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 ‘공세의 부족’, ‘유럽중시 강조 우려’, ‘방어에 대한 편협한 초점’ 등을 우려했고, ‘상대의 전투 의지를 파괴하는 데 있어 공세적 기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헤이그의 편지는 다른 비판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 편지가 더 크게 우려스러웠던 것은 육군 내에서

79) 저명한 군사평론가 필립 카버(Philip A. Karber)는 교범을 ‘교리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캐나다 비평가인 댄 루미스(Dan G. Loomis)는 미육군의 이정표로서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육군 지휘참모대학의 전 군사사 학장인 아처 존스(Archer Jones) 박사는 집중의 원리와 “오래된 진실, 방어적 정수”로 육군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다고 극찬했다. 같은 해 4월, 콜린 그레이(Colin S. Gray) 허드슨연구소의 국제전략센터의 전 부센터장은 교범을 육군의 “훌륭한 새로 완성된 작전교범”이라고 언급했다. Romjue, *Ibid*, p. 13.

고위급 장성들이 갖는 인식이 헤이그와 유사하고, 교범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당시 적극방어에 대한 극렬한 논쟁들을 크게 방어강조, 최초전투지향, 소련의 돌파 기동, 전술예비대이슈, 화력강조, 집중전술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우선 방어중시는 많은 비판 중 가장 큰 목소리였는데, 교범에 “전투의 결과는 공격 작전의 결과에서 비롯된다”라는 문구로 명시하고 스테리가 공격에 대한 장을 주도적으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비평가들 뿐 아니라 지지하는 비평가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장 극렬한 반대파이었던 비평가 윌리엄 린드(William S. Lind)⁸⁰⁾는 기동에 대한 추구는 하지만 공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지지파였던 필립 카버도 공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터무니없다며 방어의 이점을 포기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평가들에 대해 TRADOC은 “교범은 공격적 행동이 선호하는 전투 형태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격과 방어 모두와 연계된 대담한 작전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Armed Forces Journal*⁸¹⁾에 게재했다. 린드의 비판은 최초전투지향과 소련의 돌파전술에도 이어졌는데,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의 1,200대 전차를 과연 미군이 1차 전투에서 한번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범에서는 예비대를 두지 않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부대가 방어전면에 있을 수 있다는 기술에 반발과 예비대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린드는 교범이 화력소모교리(firepower-attribution doctrine)라고 평가하며 비판을 가했고, 카버는 탄약의 발달로 화력이 우세해진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⁸²⁾ 하지만 TRADOC은 화력소모에 대한 의존이 아니며, 공격

80) 초기의 반대는 1977년 3월에 비판한 콜로라도주의 게리 하트 상원의원의 보좌관 윌리엄 린드(William S. Lind)가 주도했다.

81) *TRADOC's Reply*, *Armed Forces Journal*, (1976).

과 방어 모두 함께 대담한 작전을 추구한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중전술에서 린드는 적의 우수한 교란 및 전자전 능력이 아군의 통신과 지휘통제를 방해한다는 현실과 적의 지휘관이 아군의 방어선을 움직이지 못하게 충분한 압력을 가할 때, 적의 공격축 방향으로 측면 방어부대가 제한 없이 횡방향 이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린드는 결국 교범이 선형방어(linear defense)를 옹호하는 교리라고 해석하였다. 카버는 이에 대해 교범은 선형방어가 아니라 거대한 중심 기동방어(mobile defense of greater depth)라고 반박했다. 그 밖에도 소련의 고밀도 집중전술로 방어측의 전력비가 21:1까지 열세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적극방어는 일부 방어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⁸³⁾

교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1977년 논란을 뒤로한 채 윌리엄 드퓨이 장군은 TRADOC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하였다. 결국 드퓨이 장군의 전역 이후 FM 100-5 작전 1976년판 교범은 연합최고사령부 사령관 알렉산더 헤이그(Alexander M. Haig) 대장, 3군 단장 리처드 카바조스(Richard E. Cavazos) 중장,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Edward C. Meyer) 대장 등 미육군내 여러 고위직들의 압력으로 ‘적극방어’ 교리 자체로 육군에서 거부되었다.⁸⁴⁾ ‘적극방어’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만큼이나 교범을 개정하기 위한 빠른 진행도 이어졌는데, 육군은 새로운 FM 100-5 작전 1982년판⁸⁵⁾을 출판하여 기존의 교범을 대체하였다. 이 교범과 교리는 ‘공지전투’로 널리 알려졌으며, 후일 1991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교리로 평가받는다. ‘적극방어’ 교리에서 ‘공지전투’ 교리로의 대체는 ‘적극

82) 허버트는 이에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권위를 얻기 위해 방어위주의 국방정책으로 방어위주일 수밖에 없는 독일과 화력 중심의 공군의 합의가 과연 교리작성에서 현명한 과정이었는지 의구심을 보인다. Herbert, *Ibid*, pp. 72~73.

83) Romjue, *Ibid*, pp. 13~21.

84) Herbert, *Ibid*, pp. 96~97 ; Kaufman, *Ibid*, pp.3~4. ; 남보람, 상세서(하).

85) *FM 100-5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1982).

방어' 교리의 거부와 실패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6. 결 론

1976년판 이전의 FM 100-5교범은 변화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1976년판은 당시 육군에게 윌리엄 E. 드퓌이 장군이 주작성자⁸⁶⁾로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 교범이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드퓌이의 의도대로 '육군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교범은 훈련부터 무기체계 설계까지 육군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싸우려는 지'에 대해 합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 투쟁의 교리이자 획득 전략이었다. 베트남전의 경험과 관습을 육군에서 종결시켰으며, 전문 모병군으로 탈바꿈한 육군에게 과거 징집군의 '무기로 무장한 사람'의 구조에서 모병군의 '승무원을 보유한 무기'의 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전의 모호함과 추상성을 완전히 버린 교범은 실용성과 야전성을 갖추고 전례없는 교리적 혁신을 몰고 왔다. 드퓌이는 교범을 통해 육군이 교리와 전술을 논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했다. 그 논의는 육군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정치·안보정책·군사전략·위기관리·인지심리 등 다양한 학문 분과 연구자들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교리 르네상스라는 찬사보다는 비판이 더 거세었으며, 결국 적극방어 교리는 시작과 동시에 대체가 논의되었고 불과 5년 후인 1982년 '공지전투'로 대체되었다. 적극방어 교리가 태동한

86) 19세기 훈련교범이 작가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향(Henry W. Halleck, William J. Hardee, Silas Casey, Emory Upton)이 있었기 때문에 1976년 판도 DePuy 교범으로 알려지는 것은 전통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전의 FM 100-5 교범 판본들은 딱히 저자의 이름이 교범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Herbert, *Ibid.* p. 7.

1970년대는 미육군에게 위기의 시대였다. 10여 년간 베트남전의 진창에 빠진 미육군은 외부적으로 그 기간 만큼 현대화되고 거대한 규모로 증대한 소련 및 바르샤바조약군과 대치해야 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감군과 예산삭감에 맞서야 했다. 적극방어 교리 역시 이와 같은 내외부적인 위기를 기반으로 태동했다. 교리에서 미육군은 수적으로 우세인 상대와 싸워 이겨야만 했고, 동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첫 전투부터 완벽하게 승리하고 생존해야만 했다. 또한 이와 같이 상식적이지 않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대전의 특성인 무기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은 미육군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적극방어에 대한 극렬한 비판과 거부는 외견상으로는 교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었지만 사실상 미육군의 전통을 벗어난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으며, 인간 드퓨이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⁸⁷⁾ 역설적으로 이러한 극렬한 반응은 육군이 적극방어를 교리로 받아들여도 하기 위해 드퓨이가 취한 조치에 기인하는데, 의도적으로 도해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TRADOC의 모든 훈련 계획안에 결합함으로써 교범에 관심이 없던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허버트의 언급대로 “그 교범은 명령어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사용 가능하고, 매력적이고, 읽기 쉬웠기 때문에, 육군 장교들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고 적용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작성하고, 결국 거부했습니다”⁸⁸⁾ 하지만 그렇기에 1976년판에는 드퓨이에 지문이 찍힌 듯한 전술관이 반영될 수 있었고, 쿠쉬먼이 작성한 미육군의 전통을 계승한 초안을 승인하였다면 교범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개 평범한 교범으로 역사에 묻혔을 것이다.

사실 이 교범은 1944년 6월 노르망디에 제90보병사단이 상륙할

87) 남보람, 상계서(하). ; Nyingi, *Ibid* ; Kaufman, *Ibid*.

88) Herbert, *Ibid*, p. 98. ; 남보람, 상계서(하).

때부터 시작하였다. 미숙한 예비군장교와 징집병으로 구성된 미육군은 진보한 군사학과 수년간의 전투로 단련된 독일국방군에게 엄청난 인명손실을 겪으면서 새로운 현대전을 피로 체득했다. 하지만 이후 30여년이 흐른 1970년대에도 이러한 피의 교훈은 교리로서 정립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90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에게 ‘우수함(brilliant)’, ‘고무적이고 용기있는 지도력(inspiring and courageous leadership)’, ‘이 전쟁에서 최선의 보병작전 예(some of the finest examples of infantry operations in this War)’ 등으로 평가받았던 청년장교 드퓨이의 평생 체득으로 완성된 전술관은 사명과의 같이 추진한 그의 신념으로 미육군의 교리가 되었다.

1991년 미육군은 대규모 전면전인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대파하고 큰 승리를 했다. 이라크군은 수년간 이란과의 대규모 전면전 경험을 체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6·25전쟁 이후 대규모 전면전을 하지 않은 미육군에게 농락당하는 수준으로 패배했다. 당시 미육군의 주력부대들은 완전한 상비연방군이 아닌 수많은 주방위군 부대가 혼합되어 편성되었음에도 이런 대승을 거둔 원인으로 많은 연구들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훈련, 그리고 훌륭한 교리를 지목한다. 드퓨이가 강조하고 정착시킨 교리 및 훈련—소요—개발—획득으로 이어지는 개념은 미육군의 개혁을 촉발했고,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투자된 막대한 예산으로 그 빛을 본다. 수십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최강의 무기체계로 명맥을 잇는 M1에이브럼스 주력전차, AH-64 아파치 공격헬기, M2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등이 그 예시이며, 훈련역시 고만이 창안한 SOT와 ARTEP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누구보다 제병협동을 강조한 드퓨이는 교리사에서 현재까지도 칭송받고 있으며, 그 공로로 미육군 제병협동센터는 매년 ‘윌리엄 드퓨이 장군 논문 경진대회’⁸⁹⁾를 연다.

‘공지전투’교리의 창시자이자 1977년 드퓨이 장군의 뒤를 이어 TRADOC의 사령관이 된 돈 스타리(Donn A. Starry) 장군의 표현대로 “어떤 육군 교범도 그렇게 널리 언급되고, 토론되고, 크게 오해된 적”은 없었다. 단순히 ‘적극방어’에서 ‘공지전투’로 교리의 대체가 드퓨이의 교리개발 실패라고 보기에는 기존의 1968년판 교리보다 큰 많은 발전이 있었고, ‘적극방어’ 교리의 작성자이며 열렬한 지지자인 스타리 장군이 ‘공지전투’의 창시자임을 고려하면, ‘적극방어’ 교리가 일반에 알려진 대로 사장되어 졌는지 아니면 발전하여 승계되어 졌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미육군의 교리사 연구는 극심한 군규모 감축과 대중의 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미 육군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는지 교리의 배경과 작성과정을 연구하여, 현재 병력감축과 낮은 대군신뢰도의 대한 민국 시대상에서 한국군 장교단과 교리작성 기관, 그리고 특히 장군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육군은 대규모 전면전인 제2차 세계대전과 4차중동전의 교훈에서 현대무기의 치명성과 제병협동 등 전면전의 본질을 파악하여 위계임을 통해 교리작성의 근간을 삼았는데, 한국군의 교리작성 실태는 미군 교범의 피상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복제·수용하는 수준으로, 교리작성 경향이 정체되어 있다. 이에 문구해석 중심의 피상적인 연구를 넘는 미육군의 교리작성과정 전반의 연구를 통해 교리작성 간 추진배경과 논쟁과정을 포함한 전체 교리의 통섭적인 진의와 철학을 파악하는 요구가 절실하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순 군경험과 학술적인 전쟁사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한 근거와 소요제기가 필요하며, 그간 과학화전투훈련단(KCTC)과 전투지휘훈련단(BCTP)에서 축적된 전술은

용 사례의 반영과 진보된 새로운 위게임 시뮬레이터 구축이 교리개발 및 검증 용도로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수치를 구체화하여 교리작성까지 할 수 있는 조직과 구조를 통찰하는 명석한 장성급 지휘관이며, 강력한 리더십과 유능함으로 책임감 있게 장기간 작성과정을 수행하고, 공개되고 다면적인 참여가 보장된 교리작성과정을 통해 열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육군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리를 완성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만진, “한반도에서의 공세적 방어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 기동전 이론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 김영환, “미국 기동전 사상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공지전투 (AirLand Battle) 교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軍史』, 第123號(2022).
<https://doi.org/10.29212/mh.2022..123.219>
- 김재엽,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 공해 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韓國軍事學論集』, 第75輯 第1卷(2019).
<http://doi.org/10.31066/kjmas.2019.75.1.006>
- 김한수, “국군 개혁, 어떻게? 1970년대 美 육군 사례를 보자”, 『통일한국』(2018년 11월호),
<https://unikorea21.com/?p=19627>(검색일: 2022년 08월 24일)
- 남보람, “환영 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상)-1976년판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5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06/1/BBSMSTR_0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_____,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중)-1976년판 미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19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20/1/BBSMSTR_0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_____,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하)-1976년판 미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

- (2018년 11월 26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27/1/BBSMSTR_0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노양규, “미군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기련, “美國 安保政策과 軍事戰略의 變化 : 그 特徵과 決定要因”,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석영준, “군사혁신으로 본 전쟁사”, 『군사연구』, 제127집(2009).
- 양 옥, “적극방어전략”, 『무기백과』, (2021년 01월 20일),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02163.html(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_____, “미국 군사혁신의 변천사 : 군사변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혁신 과정”,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 58 (2021).
<http://doi.org/10.32961/jwhc.2021.03.58.181>
- 이병구, “미국의 제1차 상쇄전략과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펜토믹 사단 개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권2호(2021).
<http://doi.org/10.18327/jias.2021.4.25.2.191>
- 장재규,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방안 연구: 공지전투와 비교”, 『韓國軍事學論集』, 第77輯 第3卷(2021).
<http://doi.org/10.31066/kjmas.2021.77.3.002>
- 조상태, “미 육군의 FM 100-5에 있어서의 공지전”, 『國防과 技術 (Defense and Technology)』 (1985).
<http://uci.or.kr//G701:A-00106292523@N2M>
-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Vol 18-1 (2010).
<http://uci.or.kr//G704-001862.2010.18.1.004>
- 주정율,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

구: 작전수행과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통권 127호(2020).

<http://doi.org/10.22883/jdps.2020.36.1.001>

지효근,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 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군가안보와 전략』, 통권76호(2019).

<http://doi.org/10.23111/nsas.2019.19.4.005>

허광환, “미국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군사연구』, 제147집(2019).

<http://doi.org/10.17934/jmhs..147.201906.125>

해리 섬머스, 권재상·김종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 서울: 자작아카데미, 1995.

토머스 릭스, 김영식·최재호 역, 『제네럴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2.

A. 카할리니, 임채상 역, 『골란고원의 영웅들』, 서울: 세창출판사, 2000.

Ancker, Clinton J. III, *The Evolution of Mission Command in U.S. Army Doctrine, 1905 to the Present*, Military Review March-April, 2013.

Brownlee, Romie L., Mullen III William J., *Changing An Army An Oral History of General William E. Depuy, Retired*, U.S. Military History Institute, Washington, D.C. :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8.

Cannon, Michael W., *The Development of FM100-5 from 1945 Until 1976*, University of Iowa, Master of Arts, 1984.

Coffey, ROD A., *Doctrinal Orphan or Active Partner? A History of U.S. Army Mechanized Infantry Doctrine*,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00).

DePuy, William E., *FM 100-5 Revisited*, Army 30, no.11, 1980.

Doughty, Robert A.,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68).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2).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6).

Gorman, Paul F., *Cardinal Point: An Oral History — Training Soldiers and Becoming a Strategist in Peace and War*,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1.

Herbert, Paul H., *Deciding What Has to Be Done: General William E. DePuy and the 1976 Edition of FM 100-5, Operations*,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88.

Long, Jeffrey W., *The Evolution of U.S. Army Doctrin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and Beyond*,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1.

Kaufman, Aaron J., *Continuity and Evolution: General Donn A.*

Starry and Doctrinal Change in the U.S. Army, 1974–1982,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2.

Nyingi, Erick M., *Complexity and Design Leadership: The Design of Active Defense and AirLand Battle Doctrines*,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9.

Paquin Robert J., *Desert Storm: Doctrinal Airfield Battle Success or “American Way of War?”*,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8–1999.

Romjue, John L.,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 Fort Monroe,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1984.

Swain, Richard M.,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5.

Tamminen, David L., “How to Defend Outnumbered and Win”, *Field Artillery Journal*, Fort Sill, U.S. Army Field Artillery School, 1976.

(Abstract)

How was the Military doctrine of active defense born?
: Focusing on the process of writing the FM 100-5 Operations
1976 edition

Park, Sol-kyu

This paper studies the nature of the “active defense” army doctrine through the process of writing the doctrine reflected on the FM 100-5 in the 1970s, the center of violent doctrinal change, when interest and doctrine changed from the Vietnam War to a large scale all-out war.

General William E. Depuy, the first commander of the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founded in 1973, began developing conventional and total war doctrine that strongly reflected his own tactical idea. With full support of the Army Chief of Staff, General Abrams, Depuy began the development of an “active defense” doctrine in collaboration with his strong advocates on that military theory, General Paul F. Gorman and General Donn A. Starry, but faced a lot of opposition from existing infantry branch and field units. Depuy hosted OCTOFEST conference in collaboration with FORSCOM to gain authority to proposed doctrine, and collaborated with the German Army and U.S. Air Force Tactical Air Command to produce a doctrinal agreement in political perspective.

The FM 100-5 was written with Depuy’s strong will but he had gone through a painful process when the 1976 version of “FM 100-5 Operations” was finally ready to publish.

After the FM 100-5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y clashed with traditional offensive supporters inside and outside the army because the U.S. Army’s military ideology valued initiatives and traditional infantry doctrine. The “active defense” doctrine, which is the center of controversy, was eventually replaced by the 'Airland-battle' doctrine five years later.

Keywords : Active Defense, army, doctrine, operation, airland,
battle, depuy, starry, gorman, tatics

